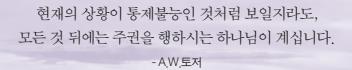
기쁨의언덕으로 edSart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CINNA



While it looks like things are out of control, behind the scenes there is a God who hasn't surrendered His authority.

- A.W.Tozer



Dear Lord 주님,

From April 2021, 4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는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회를 나누는 영적 기 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대화편

CONVERSATIONS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는 기술(art)도 과학(science)도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오직 마음(heart)을 그분께 향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거나(resolutely determined) 혹은 하나님을 위해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요.

네 번째 대화

FORTH CONVERSATION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

그는 마음을 활짝 연채,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에 관해 자주 나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미 다루었지요.

만일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들 모두 진정으로 다 내려 놓아야(renunciation)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롭고 평범하게(with freedom and in simplicity) 나누는 그 끝없는 대화(continual conversation)에 길들여진다고요. 우리가필요로 하는 건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intimately) 인지하고(recognize), 매 순간 그분께 먼저 여쭙는 것이라고, 의심이 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분의 뜻(His will)을 알수 있게, 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보고 제대로 이행할수 있게 도움(assistance)을 구해야 한다고 했지요. 행하기 전에 아뢰고, 행한 후에는 감사드려야 한다면서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선함과 완전함(His infinite goodness and perfection)을 찬양하고(in praising), 예배하며(adoring), 쉬지 않고사랑하게(loving)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더할 나위 없는 자신감(with perfect confidence)을 가지고 그의 은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한한 가치(infinite merits)를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행동에 상응하는 은혜를 틀림 없이 베풀어주시는데, 그의 경우 뚜렷하

게 그 은혜를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GOD's Presence)를 느끼다가 딴 생각에 빠지거나, 그분의 도움(His assistance)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는 한 말이지요.

우리가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만 품는다면 하나님께선 우리가 망설일 때 빛을 비춰 주신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던 일의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일의 목적을 바꾸어, 지금껏 우리 자신을 위해 해왔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화(sanctification)된다고 그는 말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일에 매달려서 수 단(means)을 목적(end)과 혼동하는지 한탄할 일인데, 그들은 인간적인, 또는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매우 불완전하게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찾은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멋진 방법(method)은, 일상의 일(common business)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우리가 할수 있는 한) 관점에서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갈 1:10, 엡 6:5, 6).

기도 시간이 다른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delusion)이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prayer)하는 것처럼, 활동하는 시간에는 바로 그 활동(action)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실해야(adhere to GOD)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의기도는다름아닌하나님의임재를느끼는것이었는데,그시간에그의영혼은하나님의사랑을제외한모든것에무감각해졌다고합니다. 그리고난후정해진기도시간이지나도그에겐아무것도달라질것이없었습니다. 여전히그분을찬양하고축복하면서하나님과함께하고, 그렇게 삶을한결같은기쁨(continual joy)으로보냈기때문입니다. 그러나하나님께서약간이나마고난을겪게하신다면좀더성장하는데보탬이되지않을까하고그는바랐습니다.

요컨대, 그분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는 걸 확신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 완벽하게 내드려야(total surrender

of ourselves) 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있어 일이 작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일을 사랑으로 하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이 처음엔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의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의 습관(habit)으로 자리잡을 테니까요. 그 때가 되면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활동하여 큰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본질(the whole substance of religion)은 믿음(faith), 소망 (hope), 사랑(charity)인데, 이를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the will of GOD)과 하나가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밖의 다른 것은 아무래도 좋으며 단지 수단(means)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목표(end)에 도달한 다음에는 믿음과 사랑에 의해 그 안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는 자(who believes)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소망하는 자(who hopes)에게는 어려움이 줄어들며, 사랑하는 자(who loves)에겐 더욱 쉬우니, 이 세가지 덕목(three virtues)을 힘써 연습하는 자신에겐 한층 더 수월하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한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자(the most perfect worshippers of GOD) 가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영적 생활에 들어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가늠하고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도 했지요. 우리 자신은 모든 경멸(all contempt)을 받아 마땅하고, 감히 크리스천이란 이름(the name of Christians)을 달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그에 따르면 우리는 갖은 불행과 셀 수 없는 사건들에 때여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건강(health)이나 기분(humours), 내적, 그리고 외적인기질(dispositions)에 있어 쉴 새 없는 변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안팎으로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이후 사람들로부터 겪을 고난(troubles), 유혹(temptations), 적의(oppositions), 그리고 반대(contradictions)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히

려그들 앞에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 듯 참고 견뎌야 한다는 군요.

"영혼(soul)이 더 완전함(perfection)을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Divine grace)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에도, 기도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가 속한 단체(항상 자신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는)의 누군가가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그처럼 습관적으로 느끼게 되었는지(habitual sense of GOD)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처음 수도원에 온 이래 지금껏 하나님을 그의 모든 생각과 바람의 목표(the end of all his thoughts and desires)이자 기울여야 할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그는 대답했답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보 안에서 끝맺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견습생활(his novitiate) 초기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시간을 정해 따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Divine existence)를 확신하고 가슴 속 깊이 새기기 위함이었지요. 논법을 익히고 복잡한 명상에 골몰하는 대신 믿음의 빛에 복종(submission to the lights of faith)하면서 말입니다. 이 짧지만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최고의 노력 (his utmost endeavour)을 기울여 하나님의 임재를 끝없이 느끼는 가운데 살겠다고, 가능하다면 그분을 더 이상 잊고 사는 일 없도록 하겠다 다짐하면서요.

기도 가운데 무한한 존재(infinite Being)가 마음(mind)을 채우는 것을 크게 느끼며, 그는 정해진 일터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도원의 요리사였으니까요) 거기서 먼저 그의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매듭지어져야 하는지 각각 검토한 다음, 업무 전이나 후나 짬짬이 나는 모든 시간을 기도로 보냈답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는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듯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지금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며(in obedience to Thy commands) 내 마음을 바깥일들(outward things)에 적

용시켜야 해요. 당신의 임재 안에(in Thy Presence) 계속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목적을 가지고서 당신의 도움으로(assistance) 내가 일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일(all my works)을 받아주세요. 내 모든 마음(all my affections)을 소유해주세요."

일을 해나가면서도 그는 모든 행위를 그분께 바치며 그의 조물주(his Maker)와 친밀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일을 끝마쳤을 때는 어떻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았는데, 만약 잘 마무리되었으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렇지 않다면 용서(pardon)를 구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를 다시 연습(exercise)했지요. 마치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 없다는 듯이요. 그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자주 행동을 새롭게 하니, 처음 이 연습에 길들여지는게 어려웠던만큼이나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게 오히려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지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행하는 이 같은 이로움(advantage)을 발견했고, 당연히 이 방법을 다른 이들에게도 성심껏 권했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자신이 본보기(example)가 되었기에 어떤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끌어당겼지요. 다름 아닌 그의 얼굴에 상냥하고 평온한경건함이 드러나기에,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르침이 되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엌일이 매우 바쁜 외중에도 그가 평정심(recollection)과 깊은 신앙심(heavenly-mindedness)을 여전히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었답니다. 그는 절대 허둥대거나(hasty) 딴전 부리는(loitering)일 없이 오히려 끊임없이 침착하고차분한 정신(uninterrupted composure and tranquility of spirit)으로 어느일이든 제 때에(in its season) 마쳤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게는 일하는 시간(The time of business)이라 해서 기도시간(the time of prayer)과 다르지않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다른 일들을 요구하는 등 내 부엌이 시끌백적하고 어수선해도, 나는 거룩한 성찬(Blessed Sacrament) 앞에 무릎을 꿇을 때처럼 매우 평온하게(great tranquillity) 하나님을 모신답니다(possess)."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통독본문3년 1독을을 위한오늘 통독 범위
- **2 묵상본문**오늘 묵상할성경구절의 범위
-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1장은 잠인의 사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순제를 깨닫아 살의 원리 를 배우고, 해나는께서 뜻하신 삶을 살기를 권연하고 있다. 7정은 1장에 이머 지혜가 주는 유악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찾 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막속

2 잠언 2:1-12

에서 내심이며

- 6대 아들아 네가 반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식하며
 - 교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데 마음을 명철에 두며 크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 4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 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임
- 7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때가 되시나니
- 8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 9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명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 리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Francisco Visited

Chepter 1 is the prelicte of Proverb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esdom and instruction/and yes are admi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Proverbs 2:1-12

- ¹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 2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 3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 4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 $^{\rm 5}$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 6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 7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his saints.
 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 equity, every good path;

 19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 11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you,
- 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n-

- -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월)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③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②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③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②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③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표열 대 같이 특성하기 위해 오늘 주신 만 말씀을 금입습니다.

(2) 단숨기도 Orac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설명을 위한 법문 반문장 기도를 기뻐합니다.

3
THE HEALTH HE TIE
From to Guides A From
STREET HEALTH HEALTH

한언중의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기봉의 교학, 진준식(AL)

연택위의 소리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장안의 히브라이 단어 '마산'은 '- 맛 같다', '바우로 반약이 되어 싫어서 관심된 일정한 때문들의 교훈을 건강하게 담은 흔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비 늘 '잠에 말한 '안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때문듯이 가르자는 말이만 듯마지 요 슬로모을 바맞한 지혜자들은 성을 깊이 관심하면서 말정한 때문이 있음을 발 건하였습니다. '23에서 슬로몬은 '아이빨아'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건하되어의 달래되다. 권고의 핵심은 '구하고 첫보'가는 '겁니다' 6 4성에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지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가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 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니다 (마구: 다), 지혜를 말으려면 구리가 지혜? 근행이 수에 나에게 주나로 있어야 합니다. 소리를 늘어야 하고 보 채를 첫듯이 찾으면 지혜역 명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산을 돌아 보면 의로 지혜를 구하거나 찾지 않는 자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필요성 을 느끼면서도 지혜를 모회처럼 아기되는 많기 때문입니다.

삼안 4.7에서는 지혜가 오름(supreme)이기에 테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비져서 라도 명칭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보회이며, 그것을 만든 차는 구하고 고 결국 모에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하는 하나는이 친히 주시는 선물이지(6 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롱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못 안심시다.

The Hekrow word for proverbs is "mashal" and means "_ is the same as." It is tresisted as "ce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bcordly containing certain patterns of procepts dosewed in life. In Chinese, it is nit! Jann'eu.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o" and "Fun" which means "solic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t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visc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e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fe where a faither admonstrate the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monstrate the children. The essence of the solomon for the content of the provincing is to "seek and search" (23-40).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m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says. Him. West 711) If we want to gain wisclom, then we must sa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wisclom. We must raise our voice and we must seek it is disell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cl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o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see not seeking or seeking for wisclom. It is because we do not treat wisclom as a predictor treasure through we show they we need wiscl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have. Wisd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v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e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⑤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 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 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 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 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 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 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 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모임 장소 Tip! ✓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 지 않도록 합니다.

●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이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 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 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

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 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1 April

04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	DNDAY	TU	ESDAY
4	5	에스라 Ezra 1-2장 🗆	6	에스라 Ezra 3장 \square
11	12	에스라 Ezra 8장 ロ	13	에스라 Ezra 9-10장 🗆
18	19	느헤미야 Nehemiah 7장 □	20	느헤미야 Nehemiah 8-9장 □
25	26	에스더 Esther 3-4장 \square	27	에스더 Esther 5장 □

WED	NESDAY	THU	JRSDAY	FRIDAY		SAT	URDAY
		1	마태복음 Matthew 26장 □	N	마태복음 /latthew 1-56 □	3 27	마태복음 Matthew :57-28 장 □
7	에스라 Ezra 4장 ロ	8	에스라 Ezra 5장 ロ	9	에스라 Ezra 6장 □	10	에스라 Ezra 7장 □
14	느헤미야 Nehemiah 1장 □	15	느헤미야 Nehemiah 2장 □	l n Ne	느헤미야 shemiah 3-4장 □	17	느헤미야 Nehemiah 5-6장 □
21	느헤미야 Nehemiah 10장 □	22	느헤미야 Nehemiah 11-12장 □		느헤미야 shemiah 13장 □	24	에스더 Esther 1-2장 □
28	에스더 Esther 6-7장 \square	29	에스더 Esther 8장 ロ	30 9-	에스더 Esther -10장 □		
				03 March S M T W T 1 2 3 4 7 8 9 10 11 14 15 16 17 18 21 22 23 24 25 28 29 30 31	F S 5 6 1 12 13 13 19 20	S M T 2 3 4 9 10 11 1 16 17 18	1

이야기로알아보는 성경에 스라, 느레미야,

에스라서 소개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에 관한 책입니다. 열왕기하와 역대기하가 증언하듯 유다가 멸망한 후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해야 했던 유다인들은 바사(페르시야)왕고레스 칙령(B.C. 538년 경)에 의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3차례 걸쳐 이뤄진 유다인들의 귀환 중 1, 2차 귀환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는 역대기의 후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반부인 1-6장은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1차 귀환(B.C. 538년 경)에 대해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7-10장은 에스라가 주도했던 2차 귀환(B.C. 458년 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이름은 저자 에스라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히브리 성경인 맛소라 사본과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느헤미야서와 한 권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4세기 경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Vulagte)에서 '에스드라 1서'와 에스드라 2서'로 분리된 이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뉘는 것이 관례화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서 성경 역시 1448년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분리하는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목적

에스라서는 오랜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유다 멸망 이전까지 유지됐던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새롭 게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때문에 회복된 유 대 공동체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넘어 유대 공동체의 신앙과 예배가 포로기 후에 어떤 식으로 회복되어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1차 귀환보다 80년 정도 늦게 이뤄진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 라는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13년 이후 이어질 3차 귀환에 대비해 1,2차 귀환자 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제사장적인 관점에 입각해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성전 재건과 신앙 개혁 사건들에 대해 장단점을 지적하며 잘한 점은 독 려하고 잘못한 점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어떤 인물?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모세의 율법에 통달했던 서기관 겸 학사이자 제사 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1세 재위 7년경에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받고 1,800명의 유대인을 인솔했습니다. 이후 여호와 신앙의 복원을 위해 성전 재건과 유월절 및 초막절 준수,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에 대한 정결 작업 등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구약성서를 취합하고 이를 정경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의 오미인 회당 창설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기 중 태어나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귀환시킬 때 식민 지의 통치자인 총독으로 임명돼 4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의 인솔과 약탈당했던 성전기물 인수를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벨론의 사냥' 또는 '바벨론의 씨(후손)'를 의미합니다. 귀환 후에는 무너진 성전과 성곽을 재건했는데 이때 세워진 성전은 그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립니다. 학개서에서는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야를 지칭할 때 즐겨 사용하는 명칭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다윗 혈통에 속한 자였으며 마태복음의 예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느헤미아 소개

앞서 언급한 대로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의 속편에 해당합니다. 에스라서가 1,2 차 귀환과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을 전후해 일어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과 함께 유대인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를 재건하는 일은 유대인의 신앙과 정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주도했던 신앙개혁 운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에스라서와 달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입각해 기록됐다는 점은 느헤미야서의 또다른 특징입니다. 즉 역사서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역사서처럼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 입장에 따라 사건 단위로 배치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에 이어 에스라와 함께 포로귀환기의 유대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왕의 최고 측근으로 시중과 더불어 왕의 술잔에 독이 들어있는가를 살피는 관리)이었는데,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전해 듣고 금식기도를 하던 중 그를 염려하는 왕의 배려에 힘입어 유다 총독으로 고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내려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수했으며 그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에스라와 힘을 합쳐 유대인들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에스더서 소개

에스더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별(Star)'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역사소설을 연 상케하는 극적 장치들이 잘 갖춰져 있고. 주인공과 그 주변인들의 인물 묘사나 상 황설정 및 역사적 사실 등이 적절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비해 종교적인 감흥 이나 신앙적인 감동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에스터의 목적은 하나님은 단지 가나안 땅에 거하는 당신의 백성만이 아니라 가나안 밖, 성전과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 거하는 자라도 당신을 신뢰하기만 하면 기필코 구원과 보호의 은총을 베푸시는 연약의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기 위합입니다.

또한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고찰할 때 원수들의 손에서 유대인들이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부림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서는 이 유대인들의 즐거운 민간 축제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부림절의 행사에 관한 기록은 마카비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스더서 특징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방 왕들의 이름이 187번 언급되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나 신앙적 술어들이 없다고 해서 본서의 신령한 가치를 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본서 전체에 면면히 녹아 있음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서를 '섭리(Providence)의 소설'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즉 본서는 분명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와 그 초월한 실존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본서를 읽다 보면 믿음의 눈으로 인간 역사 속의 신령한 행위자(하나님)를 볼 수 있고, 신앙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구원행 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숨기시고도 당신이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자가 없다는 사실을 능히 나타내 보일 수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치 자연속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절대자요 창조주이신 당신의 권위와 섭리를 확인시킬수 있듯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서를 통하여 친히 당신의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세상의 어떤 절대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킬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참조문헌 해설성경(대한기독교서회), 톰슨성경(기독지혜사) 왕대일(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이해, 성서연구사)

바벨론 포로생활 70년의 의미

제1차 포로	주전 605년	여호야김왕
제2차 포로	주전 597년	여호야긴왕
제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왕11년
성전파괴	주전 586년 4월	시드기야왕 11년
	BC586년 1월14일	<u> </u>
	마지막 유월절 제시	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한 번의 일이 아니고 또한 포로 귀화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일어났습니다.

기간

1차 포로 귀환 주전 536년

69년

스룹바벨이 1차로 동족을 이끌고 귀환

61년

50년

성전재건 시작 주전 536년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재건 시작 50년

성전재건 주전 516년 586-516=70 70년

유월절 제사 주전 515년 BC515년 1월14일, 귀환 후 첫 유월절 제사 71년

585~516 70년동안 유월절 제사 없었다

2차 포로 귀환 주전 458년 바사왕 아닥사스다왕 7년 128~147년

에스라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고향으로 귀환하여 대대적인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스 7-10장). 스룹바벨이 1차로 동족을 이끌고 귀환한 지 78년이 지난 뒤이며, 그 사이에 에스더서의 배경(BC478)이 있었다.

3차 포로 귀환 주전 445년 바사왕 아닥사스다왕 20년 141~160년

에스라가 2차로 귀환 후 14년이 지난 뒤 느헤미야가 3차로 동족을 이끌고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에스라는 이 시기에도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을 영적으로 소생시키기 위해 힘썼다.

이상을 토대로 "70년이 필한 후"라고 말씀한 이사야 23:15을 기초하여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한 70년의 기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의 포로생활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01

April 목 Thu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시는 예수님

Jesus' last hours with His disciples

통독본문 Reading Plan

마태복음 Matthew 26장



새227장(통283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난주간 목요일은 세 개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유월절 만찬〉 〈겟세마네 기도〉 〈체포 당하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마지 막 모임에서 〈같이 밥 먹자〉고 준비하십니다.

마태복음 26:17-35

17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19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0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1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리라

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 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26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 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나아가니라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 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5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Reading insight

On Thursday of the Passion Week, three events took place in this sequence. (Passover Dinner) — (Prayer at Gethsemane) — (Jesus Arrested). Jesus prepared the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 "Let's eat together".

Matthew 26:17-35

- 17 Now on the first day of Unleavened Bread the disciples came to Jesus, saying, "Where will you have us prepare for you to eat the Passover"
- ¹⁸ He said,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and say to him, 'The Teacher says, My time is at hand. I will keep the Passover at your house with my disciples."
- 19 And the disciples did as Jesus had directed them, and they prepared the Passover.
- 20 When it was evening, he reclined at table with the twelve.
- 21 And as they were eating, he said, "Truly, I say to you, one of you will betray me."
- 22 And they were very sorrowful and began to say to him one after another, "Is it I, Lord?"
- ²³ He answered, "He who has dipped his hand in the dish with me will betray me.
- ²⁴ The Son of Man goes as it is written of him, but woe to that man by whom the Son of Man is betrayed!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that man if he had not been born."
- ²⁵ Judas, who would betray him, answered, "Is it I, Rabbi?" He said to him, "You have said so."
- ²⁶ Now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after blessing it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 27 And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of it, all of you,
- 28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 ²⁹ I tell you I will not drink again of this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 30 And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 31 Then Jesus said to them, "You will all fall away because of me this night.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of the flock will be scattered.'
- 32 But after I am raised up, I will go before you to Galilee."
- 33 Peter answered him, "Though they all fall away because of you, I will never fall away."
- 34 Jesus said to him, "Truly, I tell you, this very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 35 Peter said to him, "Even if I must die with you, I will not deny you!" And all the disciples said the sa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께서 만찬 중에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나서 그것을 받아 먹 으라 하면서 그 빵을 내 몸이라고 하신다.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 요? (26절)

Jesus took the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Why did He say that? (26:26)

만찬 중에 포도주 잔을 드시고, 그 잔을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 은 나의 피라고 하신다. 왜 그리 말씀하신 것일까요? (27절)

During the dinner Jesus took the win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His disciples,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y did He say that? (26:2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 라은진(NV)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창훈(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성만찬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너희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The heart of Jesus at the last supper? For you, I do not mind dying.

체포당하고 곧 죽임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감지하고 마지막 모임을 갖는다면 어떤 모임으로 할까 생각하게 되지요. 아끼는 분들과 마지막 자리를 갖게 된다면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택하신 마지막 자리는 〈저녁 식사〉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신 것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은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하십니다.

- 첫째는 빵을 들어 축복하시며 하신 말,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 둘째는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기도 후 하신 말,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 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경 내용을 아는 것도 중 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 런 마음은 아닐까 하네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빵을 통해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길은 오직 하나, 죄를 씻어야 한다. 피를 통해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청산하마.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만큼 좋은 분이시다." 교회에서는 성찬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Knowing that He would be arrested and put to death, Jesus wanted to spend the last hours with his disciples. If we faced imminent death and were having a final meeting, we would be thinking about what kind of meeting we would want. If we could get together with those we love and care for during the last hours of our lives, what kind of gathering would we want to have?

The last place Jesus chose was the "dinner table". He ate with his disciples. During dinner Jesus said something unusual.

- The first was that he took the bread, gave thanks and said,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 The second was that he took the cup and gave thanks and said,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What was the mindset of Jesus when H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story in the Bible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understand the mind of Jesus and that of God. I wonder if this was the mind of Jesus: "Now you may not know this but I will be in you. Through the bread, I will be in you and with you. But the best thing is that you should be in our Father. There is only one way, you must cleanse your sins. I will recompense your sins with my blood. For you I do not mind dying. Why? Because my Heavenly Father is so good."

We share Holy Communion rituals at church quite often. At each Holy Communion I pray and hope that we would deeply be able to feel the mind of Jesus and that of God, especially their mind of lov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a	h
ч		ı

	_	
4		N.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 기드 Cook on cook Door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

묵상	reading	&	QT
----	---------	---	----

한 말씀 One W	ord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2

April 금 Fri

십자가 처형 현장

The site where Jesus was crucified

통독본문 Reading Plan

마태복음 Matthew 27:1-56



새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금요일에 예수님은 재판받고 부당하게 사형선고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시지요. 골고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보았을까요?

마태복음 27:41-56

- 41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 롱하여 이르되
- 42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 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 43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 다 하며
- 44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 45제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 되더니
- 46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 47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 리야를 부른다 하고
- **48**그 중의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 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 **49**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워하나 보자 하더라
- 50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 51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 52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 53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 54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 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 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 55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 56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Reading insight

On Friday, Jesus was on trial by Jewish leaders and falsely received a death sentence. He was put to death on the cross. Many people were watching at the site called Golgotha. Who did those people see there?

Matthew 27:41-56

- 41 So also the chief priests, with the scribes and elders, mocked him, saying,
- 42 "He saved others; he cannot save himself. He is the King of Israel;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in him.
- 43 He trusts in God; let God deliver him now, if he desires him. For he said, 'I am the Son of God.'"
- 44 And the robbers who were crucified with him also reviled him in the same way.
- 45 Now from the sixth hour there was darkness over all the land until the ninth hour.
- 46 And about the ninth hour Jesus cried out with a loud voice, saying, "Eli, Eli, le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 **47** And some of the bystanders, hearing it, said, "This man is calling Elijah."
- **48** And one of them at once ran and took a sponge, filled it with sour wine, and put it on a reed and gave it to him to drink.
- 49 But the others said, "Wait, let us see whether Elijah will come to save him."
- 50 And Jesus cried out again with a loud voice and yielded up his spirit.
- 51 And behold,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And the earth shook, and the rocks were split.
- 52 The tombs also were opened. And many bodies of the saints who had fallen asleep were raised,
- 53 and coming out of the tombs after his resurrection they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to many.
- 54 When the centuri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keeping watch over Jesus, saw the earthquake and what took place, they were filled with awe and said, "Truly this was the Son of God!"
- 55 There were also many women there, looking on from a distance, who had followed Jesus from Galilee, ministering to him,
- **56** among whom were Mary Magdalene and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Joseph and the mother of the sons of Zebede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 처형이 얼마다 고통스러운 것을 알게 되 는 구절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무슨 뜻인가요? (46절)

There is a phrase in the Bible that describes how painful was the crucifixion on the cross that Jesus experienced. Eloi, Eloi, Iama sabachthani. What does it mean? (27:46)

처형 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54절)

Who proclaimed that the crucified Jesus was the Son of God? (27:54)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드림교회, 김남석(NY) 뉴욕감리교회, 강원근(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남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God would reveal Himself to those who want to protect others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54절, 새번역).

이 54절의 고백을 마태복음은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분명히 짚어줍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라고(마가 15:39).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한 유대인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조롱했지만, 백부장은 뭔가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레벨이 아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못 보았는데 말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뼈대가 되는 군인입니다. 백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소대장, 칼과 방패로 백병전이 벌어지는 전투현장 최전방에 서는 군인입니다. 부하들을 격려하고 지켜내야 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까지 던져서 부하들을 지켜내는 장교이지요.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람, 〈동료를 지켜려는 사람〉에겐 예수님의 참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 3:16).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 버려둘 수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탄식의 눈물을 아는 아들은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며 그 길을 갑니다. 십자가일지언정… 그리고 〈남을 지켜려는 사람〉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많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Surely he was the Son of God!" The exclamation in Matthew 27:54 was not only the confession of the centurion but also the confession of many people at the site. However in the Gospel Book of Mark, it was clearly the centurion who exclaimed such confession. (Mark 15:39) The Jews at the site watched their fellow Jew executed on the cross and they scoffed, but the centurion saw something special about the one executed. "He is not the same type of person as worldly people, surely he is the Son of God!" How did the Roman centurion figure that out, whereas the Jews who were waiting for the Messiah could not see that?

A centurion is an elite soldier in the Roman army. He is responsible for the lives of 100 men in his company. When there is a hand-to-hand combat with a dagger and shield, he is on the frontmost line leading the fight. He is the motivator and protector of his soldiers and he is an officer who would not hesitate to sacrifice himself to save his soldiers. A person who is willing and ready to give his life for his soldiers, a person who is prepared to protect his friends could see the true character of Jesu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John 3:16) Our Father God could not allow His people to remain as slaves of the dark powers. His Son knows the tears of lamentation of His Father and walks on the path declaring, "I do not mind dying for them." Albeit it is the cross···. And "the person who is prepared to protect his friends", that is, the centurion recognizes who Jesus is. I am grateful that we are surrounded by so many good centurions within our United Methodist church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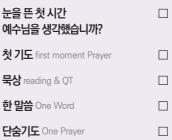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ㅇ느이	ノトノト	Than	ke N	lote
		HIGH	V 3 I 1	

0

눈을 뜬 첫 예수님을 선	니까?
-1 -1 C -	

묵상 reading & QT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3

April 토 Sat

예수님의 안식일이 준비되다

A Sabbath day for Jesus is prepared

통독본문 Reading Plan

마태복음 Matthew 27:57-28장



새151장(통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달이 뜨는 저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이 저물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에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으로 모셔집니다.

마태복음 27:57-66

-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 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 흨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Reading insigh

The counting of days and hours in the Jewish calendar usually starts with evening when the moon rises. With the sunset on Friday, the sabbath began. Jesus was crucified on Friday. Joseph of Arimathea claimed the body of Jesus and placed the body in his own new tomb that he had cut out of the rock.

Matthew 27:57-66

- 57 When it was evening, there came a rich man from Arimathea, named Joseph, who also was a disciple of Jesus.
- 58 He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the body of Jesus. Then Pilate ordered it to be given to him.
- 59 And Joseph took the body and wrapped it in a clean linen shroud
- 60 and laid it in his own new tomb, which he had cut in the rock. And he rolled a great stone to the entrance of the tomb and went away.
- **61**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re there, sitting opposite the tomb.
- **62** The next day, that is, after the day of Preparatio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gathered before Pilate
- 63 and said, "Sir, we remember how that impostor said, while he was still alive, 'After three days I will rise.'
- 64 Therefore order the tomb to be made secure until the third day, lest his disciples go and steal him away and tell the people,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the last fraud will be worse than the first."
- 65 Pilate said to them, "You have a guard of soldiers. Go, make it as secure as you can."
- **66** So they went and made the tomb secure by sealing the stone and setting a gua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58절)

Who was the one who went to Pilate and asked for Jesus' body? (27:58)

예수님의 시산은 어떤 무덤에 모 셨나요? (60절) In whose tomb was Jesus's body laid? (27:6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그레잇넥교회, 양민석(NY) 뉴욕남산교회, 이요섭(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마음, 부활을 준비하다

Preparing for the resurrection with a heart that comprehends Jesus' sacrifice

날이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금요일에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의 시신은 보통 그곳에 버려집니다.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들에게 내려지 는 극형이기에, 같은 정치범으로 몰릴까 봐 아무도 시신을 달라고 나서 지 못합니다.

부활절을 매년 맞이하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건이 토요일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우리는 부활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베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60절, 새번역).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서 말하자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인 것이지요. 같은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도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십니다. 이제, 요셉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무덤은 부활 을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마음엔 어떤 오해도 두렵지 않는 모양입니다. 마음을 쓰는 만큼 부활의 은혜는 깊 어지지요.

Jesus was crucified on Friday and the sabbath commenced as sunset began. What was going to happen to Jesus' body? The bodies of those executed on the cross by the Roman soldiers were usually abandoned there. The execution on the cross was the cruelest form of death usually applied to political prisoners and therefore the bodies were not usually claimed for fear of being labeled or accused as sympathizers of the executed

As we celebrate Easter every year, listening to the stories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bountiful grace, we learn the key issue is Saturday. There is a task. How must we prepare for Easter?

"Joseph took the body, wrapped it in a clean linen cloth, and placed it in his own new tomb that he had cut out of the rock. He rolled a big stone in front of the entrance to the tomb and went away." (27:60)

Joseph of Arimathea was a rich man, and he had so much to lose. He could have been accused as a political sympathizer but he moved Jesus' body to his own new tomb. Now the tomb that was prepared for Joseph himself became a holy place to experience the resurrection. The heart that understands the sacrifice of Jesus was fearless of any misunderstanding. The sincerer the heart, the greater the grace of resurrec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도 first moment Pray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4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부활신앙

(고후4:11~15 NCNC, NDNR and GTG)

정창호 장로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나는 참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 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가? 일 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관한 찬양을 부르고 부활절 칸타타를 참석하고 부활절의 축제를 누리는 것이 부활신앙인가? 아니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알고 믿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단순한 말 가운데 진리가 있어 보입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말입니다. No Death, No Resurrection 일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활신앙이란, 1년 중 어느 한 날을 부활신앙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을 부활신앙으로 살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되돌려 말한다면 1년 365일 날마다죽어야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langle 고후 4:7~11 \rangle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자아에 대한 집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거 꾸러뜨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죽은 것과 방불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로부터 도피하려는 생각이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후 4:10은 먼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 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 아들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 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 하면 되는 것인가요? 열심으로 말씀 안에 거하려 노력하고 열심으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인 가요? 이러한 순종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 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 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은 자와 같은 나에게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 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답답한 일, 박 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것이며, 그러할 때 그 은혜로 인해 참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후 4:15 "so that as Grace extends to more and more people it may increase Thanksgiving, to the Glory of God."(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TG: Grace + Tanksgiving = Glory of God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날마다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라 생각해 봅니다.

April 월 Mon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법?

The methodology of God that could move the peop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라 Ezra 1-2장



새410장(통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되자. 그 첫 해에 중요한 칙령을 내립니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내 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에스라 1:1-11

1 바사 왕 고레스 워녕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 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 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 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 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 님이시라

4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 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 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5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 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7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 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8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 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9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 물아홉 개요

10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열 개요 그밖의 그릇이 첫 개이니

11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 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 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Reading insight

As soon as Cyrus of Persia became king, he issued an important proclamation in his first year. The people of Israel were allowed to return to their homeland. What actually happened?

Ezra 1:1-11

- ¹ In the first year of Cyrus king of Persia, that the word of the LORD by the mouth of Jeremiah might be fulfilled,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Cyrus king of Persia, so that he made a proclamation throughout all his kingdom and also put it in writing:
- ² "Thus says Cyrus king of Persia: The LORD, the God of heaven, has given me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and he has charged me to build him a house at Jerusalem, which is in Judah.
- ³ Whoever is among you of all his people, may his God be with him, and let him go up to Jerusalem, which is in Judah, and rebuild the house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he is the God who is in Jerusalem.
- ⁴ And let each survivor, in whatever place he sojourns, be assisted by the men of his place with silver and gold, with goods and with beasts, besides freewill offerings for the house of God that is in Jerusalem."
- ⁵ Then rose up the heads of the fathers' houses of Judah and Benjamin, an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everyone whose spirit God had stirred to go up to rebuild the house of the LORD that is in Jerusalem.
- 6 And all who were about them aided them with vessels of silver, with gold, with goods, with beasts, and with costly wares, besides all that was freely offered.
- ⁷ Cyrus the king also brought out the vessels of the house of the LORD that Nebuchadnezzar had carried away from Jerusalem and placed in the house of his gods.
- 8 Cyrus king of Persia brought these out in the charge of Mithredath the treasurer, who counted them out to Sheshbazzar the prince of Judah.
- ⁹ And this was the number of them: basins of gold, 1,000 basins of silver, 29 censers,
- 10 30 bowls of gold, 410 bowls of silver, and 1,000 other vessels:
- 11 all the vessels of gold and of silver were 5,400. All these did Sheshbazzar bring up, when the exiles were brought up from Babylonia to Jerusal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70년 포로 후, 이스라 엘 백성을 귀환시키겠다는 예레 미야의 선포를 이루기 위해 고레 스 왕을 움직이신 방법은 무엇이 었나요? (1절)

How did God move the heart of King Cyrus in order to fulfill the word of the LORD spoken by Jeremiah to make a proclamation allowing the return of Israelites to Judah after 70 years of imprisonment? (1:1)

포로 후 귀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 은 무엇이었나요? (5절)

Those who returned after years of imprisonment decided to follow the proclamation. How did God move their hearts? (1: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 이종범(NY) 뉴욕반석교회, 김동규(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감동받을 줄 아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Those who can be moved are blessed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귀환시킬 것을 미리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 그 일은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세상을 평정하고 나서, 자기의 너그러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귀환 허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환했을까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주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1절, 새번역).
-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5절, 새 번역).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감동 moving〉입니다. 감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휘저어 들어 올리다"라는 구체적인 action이 담긴 말입니다. 그랬더니마음에 따뜻한 활력, 곧 운동력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중에, 다른 분이 하는 기도를 듣는 중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감한 사람인가요? 감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인가요? 무감한 사람들이 감동받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In Jeremiah 29:10, God proclaimed in advance that the prisoners in exile would be allowed to return to their homeland. "When seventy years are completed for Babylon, I will come to you and fulfill my gracious promise to bring you back to this place." Then the Israelites returned. What actually happened? Was it because Cyrus king of Persia wanted to brag about his generosity having conquered the world? Not all Israelites returned to Judah after royal permission was given to return. Who actually returned? What kind of method was deployed by Almighty God who is in control of world history?

- "The LORD moved the heart of Cyrus king of Persia." (1:1)
- "Everyone whose heart God had moved prepared to go." (1:5)

The method God deployed was "to move the heart." The corresponding Hebrew word is "to stir up and lift up" and contains a meaning of concrete action and elicits a state of heart invigorated with energy and desire.

We can find many people around us who are moved by a sermon, by a hymn, or by a prayer of others. Those who are moved are blessed people. Are we the people incapable of being moved? Or are we capable of fixing our eyes on God who can move our hearts? I hope and pray that many of those who are not capable of being moved would actually be move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a	h
ч		Į

	_	
4		Ν.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	도 first	moment	Prayer
-----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April 화 Tue

성전 재건 예배로 먼저 시작하다

Temple reconstruction begins with worship. Six months in advanc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라 Ezra 3장



새600장(통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합니다. 어떤 순서로 정착을 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먼저 마을에 흩어져 생활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리 고 나서 성전 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 살펴봅니다.

에스라 3:1-13

1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 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 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 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 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

3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 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4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 마다 드리고

5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 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7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 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 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8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 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9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 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 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10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 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 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 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Reading insight

The Israelites returned to Judah. We are curious about their priorities. First they settled down in towns and began preparing for their livelihood. Then they focused on rebuilding the temple. We will look at how they proceeded.

Ezra 3:1-13

- ¹ When the seventh month came, and the children of Israel were in the towns, the people gathered as one man to Jerusalem.
- ² Then arose Jeshua the son of Jozadak, with his fellow priests, and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 with his kinsmen, and they built the altar of the God of Israel, to offer burnt offerings on it,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the man of God.
- ³ They set the altar in its place, for fear was on them because of the peoples of the lands, and they offered burnt offerings on it to the LORD, burnt offerings morning and evening.
- ⁴ And they kept the Feast of Booths, as it is written, and offered the daily burnt offerings by number according to the rule, as each day required,
- ⁵ and after that the regular burnt offerings, the offerings at the new moon and at all the appointed feasts of the LORD, and the offerings of everyone who made a freewill offering to the LORD.
- ⁶ From the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they began to offer burnt offerings to the LORD. But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of the LORD was not yet laid.
- 7 So they gave money to the masons and the carpenters, and food, drink, and oil to the Sidonians and the Tyrians to bring cedar trees from Lebanon to the sea, to Joppa, according to the grant that they had from Cyrus king of Persia.
- 8 Now in the second year after their coming to the house of God at Jerusalem, in the second month,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 and Jeshua the son of Jozadak made a beginning, together with the rest of their kinsmen, the priests and the Levites and all who had come to Jerusalem from the captivity. They appointed the Levites, from twenty years old and upward, to supervise the work of the house of the LORD.
- 9 And Jeshua with his sons and his brothers, and Kadmiel and his sons, the sons of Judah, together supervised the workmen in the house of God, along with the sons of Henadad and the Levites, their sons and brothers.
- 10 And when the builders laid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of the LORD, the priests in their vestments came forward with trumpets, and the Levites, the sons of Asaph, with cymbals, to praise the LORD, according to the directions of David king of Israel.
- 11 And they sang responsively, praising and giving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toward Israel." And all the people shouted with a great shout when they praised the LORD, because the foundation of the house of the LORD was laid.
- 12 But many of the priests and Levites and heads of fathers' houses, old men who had seen the first house, wept with a loud voice when they saw the foundation of this house being laid, though many shouted aloud for joy,
- 13 so that the people could not distinguish the sound of the joyful shout from the sound of the people's weeping, for the people shouted with a great shout, and the sound was heard far awa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할 집을 마련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2절)

Having returned and settled down in their towns, what was the first thing the Israelites did when they gathered in Jerusalem? (3:2)

성전 기초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 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한 일은 무 엇이었나요? (6절)

What was the first thing the Israelites did when there was no temple foundation? (3: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베델교회, 진세관(NY) 뉴욕성서교회, 김종일(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삶의 풍성함, 영감과 감동, 예배에서 흘러나옵니다

Prosperity of life, spirituality, and being moved all flow out of worship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일이 시급한 일들이었을까요? 일의 순서를 알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듯이, 그들에게도 준비된 일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 성전 재건 공사는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둘째 달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먼저 시작된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1절).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3절, 새번역). 하나님 께서 주시는 영감, 감동은 항상 건강합니다. 따뜻하지요. 영감과 감동이 있으면, 실천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사람은 움직이게 되지요. 성전재건은 어떻게 시작된 것 같은가요?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을 보면 삶이 풍성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과 감동, 감사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니까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가 앉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건물이 교회가아니라 예배드려지는 곳이 교회이네요.

For the people returning to Israel, what was the most pressing issue? As it is important to know the priority of workflow in our faith journey, it seems that the Israelites who returned had some kind of prepared schedule to follow. In Ezra 3:8,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did not start until the second month of the second year after their return. But there was something they had already started. What was it?

"When the seventh month came and the Israelites had settled in their towns, the people assembled as one man in Jerusalem." (3:1) "Despite their fear of the people around them, they built the altar on its foundation and sacrificed burnt offerings on it to the LORD, both the morning and evening sacrifices." (3:3)

The inspiration and passion from God are always healthy. They are also warm. When inspired and impassioned, people move even without being told to do so. Such was the way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began.

The work of God begins at the site of worship. We often witness abundance of life for those who place worship as a high priority in life. They experience life filled with inspiration, passion, and thanksgiving to God. I thank God for leading me today to the place of worship. Reflecting on today's scriptur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a place to worship.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7

April 수 Wed

성전 재건, 쉬운 일은 없다

Nothing is easy when rebuilding the temp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라 Ezra 4장



새312장(통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 방해도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해를 넘어서는지, 또 방해세력들이왕에게 올린 상소의 영악함을 정확하게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 4:1-10

1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 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 듣고

2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 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 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4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 바사왕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 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7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8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글에

9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새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래 사람과 아바새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해 사람과 엘 람 사람과

10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Reading insight

As soon as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began so did the opposition. We need to focus on the details of the petition written by the opposition to the King of Persia and understand the vicious cleverness.

Ezra 4:1-10

- ¹ Now when the adversaries of Judah and Benjamin heard that the returned exiles were building a temple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 ² they approached Zerubbabel and the heads of fathers' houses and said to them, "Let us build with you, for we worship your God as you do, and we have been sacrificing to him ever since the days of Esarhaddon king of Assyria who brought us here."
- ³ But Zerubbabel, Jeshua, and the rest of the heads of fathers' houses in Israel said to them, "You have nothing to do with us in building a house to our God; but we alone will build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as King Cyrus the king of Persia has commanded us."
- ⁴ Then the people of the land discouraged the people of Judah and made them afraid to build
- ⁵ and bribed counselors against them to frustrate their purpose, all the days of Cyrus king of Persia, even until the reign of Darius king of Persia.
- ⁶ And in the reign of Ahasuerus, in the beginning of his reign, they wrote an accusation against the inhabitants of Judah and Jerusalem.
- ⁷ In the days of Artaxerxes, Bishlam and Mithredath and Tabeel and the rest of their associates wrote to Artaxerxes king of Persia. The letter was written in Aramaic and translated.
- 8 Rehum the commander and Shimshai the scribe wrote a letter against Jerusalem to Artaxerxes the king as follows:
- ⁹ Rehum the commander, Shimshai the scribe, and the rest of their associates, the judges, the governors, the officials, the Persians, the men of Erech, the Babylonians, the men of Susa, that is, the Elamites,
- 10 and the rest of the nations whom the great and noble Osnappar deported and settled in the cities of Samaria and in the rest of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성전재건을 이끌어나간 지도자 는 누구였나요? (3절) Who was the leader behind the rebuilding? (4:3)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을 어떻게 물리쳤나요? (3절) How did they resist the opposition? (4: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Voices from The Hill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욕주나목교회, 문정웅(NY) 뉴욕한인교회, 이용보(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방해를 넘어서는 길은 분명히 있다

There is definitely a way to overcome opposition

성전 재건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미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토착세력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처음 제시한 제안은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였습니다. 또 당신들의 하나님을 우리도 섬겨왔고 줄곧 제사를 드려 왔다고까지 했습니다. 도와준다고까지 하니 비용도 절감할 기회인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신앙의 어려운 일들,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은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지요. 비용 절감이란 유혹을 물리치기도 쉽지도 않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스룹바벨과 리더들은 어떻게 이방해에 대처해 나갈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오" (3절, 새번역).

스룹바벨은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합니다. 물론 비용까지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분명하네요. 숨겨진 방해 의도를 분명히 보게 된 것, 어쩌면 이런 분명한 소명,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주시는 힘인 것 같네요.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소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따뜻한 분들이 주위에 많아서 감사하게 됩니다.

Rebuilding of the temple was not smooth. As the news of "rebuilding the temple of God" spread, the indigenous people around Jerusalem began to oppose it. Their first proposition was that they wanted to join and participate. They claimed that they had been serving the same God and even worshipping the same God all along. They wanted to help which even meant an opportunity to reduce expenses, what should the Israelites do?

We often encounter difficulties in our faith journey and occasions around us that shake the foundation of our sincere faith. And it is not easy to fend off the temptation of cost savings. How should we deal with such situations? How did Zerubbabel and the leaders handle the opposition?

"You have no part with us in building a temple to our God. We alone will build it for the LORD, the God of Israel, as King Cyrus, the king of Persia, commanded us." (4:3)

Zerubbabel made it clear what he meant by "we alone will build it." Of course he also showed clear resolve that all the cost would be borne by Israelites. He saw clearly the hidden intention of the opposition. It may be a strength given by God to those who understand clearly the calling and the resolve to assume responsibility. I give thanks to so many warm believers around us who understand the calling to set straight paths for our churches and show their resol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pa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8

April 목 Thu

끝나지 않는 걸림돌, 닷드내 총독

An unending stumbling block, Governor Tattenai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라 Ezra 5장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레스의 칙령(BC 538)으로 귀환하고 나서 다리우스 2년, 곧 520년까지 성전 재건은 중단됩니다. 공사 중단 기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16년이 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가 돕습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자,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이마지막 걸림돌이 됩니다.

에스라 5:1-11

- 1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 2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 3 그 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 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 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 4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 5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 6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 7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 8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 9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 였느냐 하고
- 10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 11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Reading insight

From the exiles return to Judah upon the proclamation of King Cyrus in 538 BC through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in 520 BC,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stopped. The duration of the stoppage was more than sixteen years.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helped. As the rebuilding began again, the Governor in charge of the western region of the Euphrates River became a new obstacle.

Ezra 5:1-11

- ¹ Now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the son of Iddo, prophesied to the Jews who were in Judah and Jerusalem, in the name of the God of Israel who was over them.
- ² Then Zerubbabel the son of Shealtiel and Jeshua the son of Jozadak arose and began to rebuild the house of God that is in Jerusalem, and the prophets of God were with them, supporting them.
- ³ At the same time Tattenai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and Shethar-bozenai and their associates came to them and spoke to them thus: "Who gave you a decree to build this house and to finish this structure?"
- 4 They also asked them this: "What are the names of the men who are building this building?"
- ⁵ But the eye of their God was on the elders of the Jews, and they did not stop them until the report should reach Darius and then an answer be returned by letter concerning it.
- 6 This is a copy of the letter that Tattenai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and Shethar-bozenai and his associates, the governors who were in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sent to Darius the king.
- ⁷ They sent him a report, in which was written as follows: "To Darius the king, all peace.
- 8 Be it known to the king that we went to the province of Judah, to the house of the great God. It is being built with huge stones, and timber is laid in the walls. This work goes on diligently and prospers in their hands.
- ⁹ Then we asked those elders and spoke to them thus: 'Who gave you a decree to build this house and to finish this structure?'
- ¹⁰ We also asked them their names, for your information, that we might write down the names of their leaders.
- 11 And this was their reply to us: 'We are the servants of the God of heaven and earth, and we are rebuilding the house that was built many years ago, which a great king of Israel built and finish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 운 두 예언자는 누구인가요? (1절)

Who were the two prophets who helped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5:1)

닷드내 총독의 요구를 유다의 원 로들이 잘 감당합니다. 누가 그 일을 도우셨나요? (5절)

The elders of the Jews of Judah handled the request of Governor Tattenai well. Who helped them? (5: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로체스터제일교회, 이진국(NY)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동기(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방해가 한 번으로 끝난다면 좋으련만…

If the opposition ended with one time...

순탄할 줄 알았던 성전 재건, 쉬운 일은 없는 모양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 가 나서서 스룹바벨을 돕습니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 다 제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학개 1:9). 이제 성전 재건이 착수되자, 지역 총 독 닷드내가 누가 이런 공사를 하라고 했느냐면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16년 동 안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다시 중단되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새로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잘 해 보려고 하는 데, 금방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 었다"(5절). 원로들이 닷드내 총독에게 성전 재건을 누가 허락했는지 알렸을 것 입니다. 다리우스 왕에게 서신을 띄웁니다.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 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 습니다"(17절).

다음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믿어보면 어떨까요? 야고보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를 기쁘게 여기라"(야고보 1:2)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해가 한 번으로 끝난다면 좋으려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4), 하나님이 살아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줄 압니다.

They were hoping that the rebuilding would go smoothly, but nothing was easy. The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helped Zerubbabel. "Because of my house, which remains a ruin, while each of you is busy with his own house." (Haggai 1:9) As soon as the building restarted, Governor Tattenai stopped the rebuilding by questioning who authorized the rebuilding. Starting again after having been stopped for sixteen years was not easy, and yet they were hit with another obstacle. We sometimes face similar situations. With renewed attitude and resolve we try to kick start a vigorous faith journey, then we immediately encounter another stumbling block. What do you do now?

"But the eye of their God was watching over the elders of the Jews, and they were not stopped until a report could go to Darius and his written reply be received." (5:5) The elders of the Jews must have told Governor Tattenai who had authorized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The Governor submitted the report to King Darius. "Let a search be made in the royal archives of Babylon to see if King Cyrus did in fact issue a decree to rebuild this house of God in Jerusalem." (5:17)

Next we are curious about the outcome. God did it, so why not trust that God would resolve it? St. James said in James 1:2,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Why did he say that? One stumbling block is enough.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James 1:4) I believe that the experience witnessing the work of our living God makes us fully wholesom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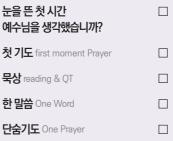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09

April 금 Fri

닷드내 총독이 오히려 성전재건을 돕게 되다

Governor Tattenai ended up helping the rebuilding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라 Ezra 6장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다리우스 왕은 편지를 받고 서고를 조사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고는 이제, 성전 재건을 돕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은 다리우스 왕 6년, 516년, 착공한지, 4년 만에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6:1-12

- 1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두 보물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 2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 3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 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육십 규 빗으로, 너비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 4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 서 내리라
- 5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 6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 곳을 멀리하여 7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 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 8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 9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 10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 11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 12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 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 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Reading insight

Having received the report, King Darius ordered a search of the archives. Having found the decree of King Cyrus, King Darius now issued a new order to help the rebuilding.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was completed in the sixth year of King Darius in 516 BC.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ground breaking. Halleluiah!

Ezra 6:1-12

- ¹ Then Darius the king made a decree, and search was made in Babylonia, in the house of the archives where the documents were stored.
- ² And in Ecbatana, the capital that is in the province of Media, a scroll was found on which this was written: "A record.
- ³ In the first year of Cyrus the king, Cyrus the king issued a decree: Concerning the house of God at Jerusalem, let the house be rebuilt, the place where sacrifices were offered, and let its foundations be retained. Its height shall be sixty cubits and its breadth sixty cubits,
- ⁴ with three layers of great stones and one layer of timber. Let the cost be paid from the royal treasury.
- ⁵ And also let the gold and silver vessels of the house of God, which Nebuchadnezzar took out of the temple that is in Jerusalem and brought to Babylon, be restored and brought back to the temple that is in Jerusalem, each to its place. You shall put them in the house of God."
- 6 "Now therefore, Tattenai, governor of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Shethar-bozenai, and your associates the governors who are in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keep away.
- 7 Let the work on this house of God alone. Let the governor of the Jews and the elders of the Jews rebuild this house of God on its site.
- 8 Moreover, I make a decree regarding what you shall do for these elders of the Jews for the rebuilding of this house of God. The cost is to be paid to these men in full and without delay from the royal revenue, the tribute of the province from Beyond the River.
- ⁹ And whatever is needed--bulls, rams, or sheep for burnt offerings to the God of heaven, wheat, salt, wine, or oil, as the priests at Jerusalem require--let that be given to them day by day without fail,
- 10 that they may offer pleasing sacrifices to the God of heaven and pray for the life of the king and his sons.
- ¹¹Also I make a decree that if anyone alters this edict, a beam shall be pulled out of his house, and he shall be impaled on it, and his house shall be made a dunghill.
- 12 May the God who has caused his name to dwell there overthrow any king or people who shall put out a hand to alter this, or to destroy this house of God that is in Jerusalem. I Darius make a decree; let it be done with all diligen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3-5절) What was contained in the decree of King Cyrus? (6:3-5)

다리우스가 내린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6-12절) What was contained in the order given by King Darius? (6:6-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김재현(NY)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감리교회, 김진우(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

포기하지 않았더니… Not having given up …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닷드내 총독이 보낸 서신을 받아본 다리우스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다리우스는 편지에 언급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서고에서 확인토록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성 전을 지으라는 허락이 첫째고, 둘째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내 용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댈 터이니,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8절). 이런 것을 전화위복이라 하나요?

닷드내 총독의 방해는 공식적인 관리의 중단 요구였습니다. 공식 요구라고 포기하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이나 방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 하시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축복을 드러내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우리가 구할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윙크하실 것 같습니다.

How did King Darius handle the report submitted by Governor Tattenai that appeared to be potentially the last stumbling block? King Darius ordered a search of the archives and sought the decree of King Cyrus. Two things were kept in writing. The first was the permit to rebuild the temple, and the second was authorization to finance the rebuilding out of the royal treasury.

"Moreover, I hereby decree what you are to do for these elders of the Jews in the construction of this house of God: The expenses of these men are to be fully paid out of the royal treasury, from the revenue of Trans-Euphrates, so that the work will not stop." (6:8) Do we call this situation a blessing in disguise?

The obstacle from Governor Tattenai was a request of work stoppage by an official bureaucrat. What if the work actually stopped just because the request was made by an official bureaucrat? If God ordered us not to give up either due to a test or an obstacle, then we should not give up. When we obey God, God will reveal something unexpected to us.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What we must look for is the sincerity of our faith to seek the will of God no matter how hard our situation may be. I am certain that God would look at us and wink.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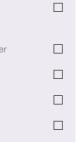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0

April 토 Sat

2차 귀환, 에스라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목적은?

The purpose of allowing Ezra to retur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라 Ezra 7장



새552장(통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스룹바벨의 귀환이 1차 귀환(BC 538)이라면, 에스라의 귀환은 2차 귀환(BC 458)입니다. 두 귀환 사이에 〈에스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 귀환 80년 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주목할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한 지원내용들, 그리고 그에 대한 에스라의 마음자세입니다.

에스라 7:11-28

- 11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 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 13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 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 14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 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 15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 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 16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 17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제의 물 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 18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 19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 20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 21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 22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밧까지, 기름도 백 밧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 23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짓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 25 에스라여 너는 네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 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 26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 둘지니라 하였더라
- 27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 28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Reading insigh

Zerubbabel's return to Judah was the first return of exiles from Babylon in 538 BC and Ezra's return to Judah was the second in 458 BC. Between the two returns, there was the story of Esther. 80 years after the first return, King Artaxerxes of Persia decided to allow Ezra to return to Jerusalem. W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is the content of King Artaxerxes' decree to support Ezra and the attitude of Ezra in response to the king's decree.

Ezra 7:11-28

- 11 This is a copy of the letter that King Artaxerxes gave to Ezra the priest, the scribe, a man learned in matters of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and his statutes for Israel:
- 12 "Artaxerxes, king of kings, to Ezra the priest, the scribe of the Law of the God of heaven. Peace. And now
- 13 I make a decree that anyone of the people of Israel or their priests or Levites in my kingdom, who freely offers to go to Jerusalem, may go with you.
- 14 For you are sent by the king and his seven counselors to make inquiries about Judah and Jerusalem according to the Law of your God, which is in your hand,
- 15 and also to carry the silver and gold that the king and his counselors have freely offered to the God of Israel, whose dwelling is in Jerusalem,
- 16 with all the silver and gold that you shall find in the whole province of Babylonia, and with the freewill offerings of the people and the priests, vowed willingly for the house of their God that is in Jerusalem.
- 17 With this money, then, you shall with all diligence buy bulls, rams, and lambs, with their grain offerings and their drink offerings, and you shall offer them on the altar of the house of your God that is in Jerusalem.
- 18 Whatever seems good to you and your brothers to do with the rest of the silver and gold, you may do, according to the will of your God.
- 19 The vessels that have been given you for the service of the house of your God, you shall deliver before the God of Jerusalem.
- 20 And whatever else is required for the house of your God, which it falls to you to provide, you may provide it out of the king's treasury.
- ²¹ "And I, Artaxerxes the king, make a decree to all the treasurers in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Whatever Ezra the priest, the scribe of the Law of the God of heaven, requires of you, let it be done with all diligence,
- ²² up to 100 talents of silver, 100 cors of wheat, 100 baths of wine, 100 baths of oil, and salt without prescribing how much.
- ²³ Whatever is decreed by the God of heaven, let it be done in full for the house of the God of heaven, lest his wrath be against the realm of the king and his sons.
- 24 We also notify you that it shall not be lawful to impose tribute, custom, or toll on anyone of the priests, the Levites, the singers, the doorkeepers, the temple servants, or other servants of this house of God.
- 25 "And you, Ezra, according to the wisdom of your God that is in your hand, appoint magistrates and judges who may judge all the people in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all such as know the laws of your God. And those who do not know them, you shall teach.
- 26 Whoever will not obey the law of your God and the law of the king, let judgment be strictly executed on him, whether for death or for banishment or for confiscation of his goods or for imprisonment."
- 27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our fathers, who put such a thing as this into the heart of the king, to beautify the house of the LORD that is in Jerusalem,
- 28 and who extended to me his steadfast love before the king and his counselors, and before all the king's mighty officers. I took courage, for the hand of the LORD my God was on me, and I gathered leading men from Israel to go up with 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28절) Who did Ezra confess allowed him to return to Jerusalem? (7:28)

엄청난 지원을 받아 귀환한 에스라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27절)

Having returned with abundance of support, Ezra clearly understood his mission. What was his mission? (7:27)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 박재용(NY)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태(NY)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했더니…

I want to be an instrument of God's work ...

《에스라서》인데 드디어 7장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의 왕 아닥사스다 (BC 464-424)는 에스라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서 보냅니다. 자신도 성전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15절), 유프라테스 강 서쪽 행정관청에서 국고를 지원받도록 (21절)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23절).

이것이 아닥사스다의 의도라면, 에스라는 자신이 받게 된, 넘치도록 과한 지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일을 맡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 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달했 다고 하는 에스라, 교만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이토록 과한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28절)이라고 합니다. 에스라의 깨달음은 분명합니다. 27절,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순종하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교우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We have been studying the book of Ezra and Ezra finally appears in Chapter 7. King Artaxerxes of Persia (464–424 BC) sent Ezra off loaded with a tremendous amount of support. The King not only personally contributed temple gifts (7:15) but also issued a decree to provide support out of the royal treasury from funds generated in the region of Trans–Euphrates. (7:21) The King explained his decision and said, "Why should there be wrath against the realm of the king and of his sons?" (7:23)

If that was the intent of King Artaxerxes, how do you think Ezra understood the overwhelming support he received? When an important task is assigned to people, most people usually attribute it to their own ability but Ezra was different. Ezra was known as a learned person of the Laws of God and he was far from being arrogant. He is a role model for us.

First, Ezra attributed all the support and love from King Artaxerxes not to his own ability but to "God's good favor to him." (7:28) Ezra's understanding was clear. "The God of our fathers has put it into the king's heart to bring honor to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in this way." (7:27) As Ezra prepared himself to be an instrument of God's work, God used King Artaxerxes to bring glory to God.

For those who want to be used as an instrument of God's work, they experience the glory of God. When we come in contact with people who obey God and diligently participate in God's work, we feel something. The faith journey with those saints is pure happines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지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지혜로운 반대처리법...

정창호 장로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우리는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에는 일반적으로 도전과 시련이 함께 마주하며, 이럴 때 저마다의 다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한 반대 의견들과의 갈등이 생겨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들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댄 서덜랜드 저자의 "플라밍고 로드교회 이야기"책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1. 반대의 유형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는 사람은 어떤 형태이건 간에 항상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를 훌륭하게 다룰 수 있어야 비로소 목표하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 벽 재건에 성공했던 느헤미야에게서 반대를 다루었던 성경적 모범 유형을 보겠습니다.

- 1) 무관심(느 3:5):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비전을 품고, 그 먼 길을 철저하게 준비, 계획하고 예루 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중에는 느헤미야의 편에 서지 않고, 무 관심하였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격렬한 저항보다 더욱 지도자를 힘들게 합니다.
- 2) 분노(노 4:1): 느헤미야의 계획은 산발랏과 같은 사람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산발랏은 자신의 분노를 느헤미야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분노와 저항은 느 헤미야의[사역 완성까지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 3) 비웃음(노 4:1): 무관심이나 분노와는 달리 비웃음은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비꼬는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웃음을 이겨낼 자제력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4) 비난(노 4:2-3): 산발랏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계획을 비난합니다. 그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결과를 사주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등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이때 지도자의 고통이 따릅니다.
- 5) 싸움(느 4:8,11): 느헤미야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조용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 야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역의 기간 내 내 그들이 거는 싸움과 위협에 시달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싸움과 도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2. 반대처리법

- 이러한 반대에 대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를 처리하였을까요?
- 1) 변함없는 기도(느 4:4-5): 느헤미야가 반대에 대해서 제일 처음 보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성숙한 지도자는 기도의 방어막을 소유한 지도자입니다.
- 2) 변함없는 열심(노4:6): 느헤미야는 반대에 부딪혔을 때도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이, 아예 정지한 뒤에 다시 일을 추진하는 것보 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3) 지속적인 격려(느 4:14): 느헤미야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어 용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첫째, 비난을 두려워 말라. 둘째,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셋째, 당신들의 목적을 잊지 말라. 이러한 격려를 통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 4) 지속적인 가이드(느 4:16): 성숙한 지도자는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극복하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쏟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이끄는데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책임 맡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다보면, 자신이 맡고 있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5) 변함없는 경계(노 4:22): 느헤미야는 반대의 고비를 한 번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방심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러한 공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경계야말로 느헤미야의 적을 좌절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 『플라밍고 로드교회 이야기』 중에서

12

April 월 Mon

긴 여정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손길

Feeling the hands of God during a long journey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라 Ezra 8장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에스라가 아닥사드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위 해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드리는 모습을 다루고 있 습니다

에스라 8:21-25. 30-36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 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 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 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24 그 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 곧 세레뱌와 하사뱌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25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 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30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 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 니라

31 첫째 달 십이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32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삼일 간 머물고

33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댜가 함께 있어

34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 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 때에 기록하였느니라

35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 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 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숫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 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 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36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 느니라

Reading insight

This chapter deals with stories of Ezra receiving permission from King Artaxerxes, preparing to return to Jerusalem, and worshipping at the temple upon arriving in Jerusalem.

Ezra 8:21-25, 30-36

- 21 Then I proclaimed a fast there, at the river Ahava, that we might humble ourselves before our God, to seek from him a safe journey for ourselves, our children, and all our goods.
- 22 For I was ashamed to ask the king for a band of soldiers and horsemen to protect us against the enemy on our way, since we had told the king, "The hand of our God is for good on all who seek him, and the power of his wrath is against all who forsake him."
- 23 So we fasted and implored our God for this, and he listened to our entreaty.
- 24 Then I set apart twelve of the leading priests: Sherebiah, Hashabiah, and ten of their kinsmen with them.
- ²⁵ And I weighed out to them the silver and the gold and the vessels, the offering for the house of our God that the king and his counselors and his lords and all Israel there present had offered.
- ³⁰ So the priests and the Levites took over the weight of the silver and the gold and the vessels, to bring them to Jerusalem, to the house of our God.
- 31 Then we departed from the river Ahava on the twelfth day of the first month, to go to Jerusalem. The hand of our God was on us, and he delivered us from the hand of the enemy and from ambushes by the way.
- 32 We came to Jerusalem, and there we remained three days.
- 33 On the fourth day, within the house of our God, the silver and the gold and the vessels were weighed into the hands of Meremoth the priest, son of Uriah, and with him was Eleazar the son of Phinehas, and with them were the Levites, Jozabad the son of Jeshua and Noadiah the son of Binnui.
- 34 The whole was counted and weighed, and the weight of everything was recorded.
- ³⁵ At that time those who had come from captivity, the returned exiles, offered burnt offerings to the God of Israel, twelve bulls for all Israel, ninety-six rams, seventy-seven lambs, and as a sin offering twelve male goats. All this w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 ³⁶ They also delivered the king's commissions to the king's satraps and to the governors of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and they aided the people and the house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왜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22절) Why didn't Ezra ask for help? (8:22)

에스라가 왕의 도움 없이 예루살 렘을 출발하고자 결단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 했을까요? (23절)

What do you think went through Ezra's mind when he decided not to seek the king's help? (8:23)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 국재현(NY)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이호승(NY)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사람들

Those who walk with you in your faith journey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빌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22절).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귀국할 수있도록 간절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23절). 왜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22절)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왕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이스라엘 성전과 유다 공동체 회복을 시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출발 전부터 유다 백성들,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겪으면서 유다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서로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머금고 한발 한발 내딛을 때, 그들은 왕의 보병과 기병의 보호가 아닌 신실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후 아닥사스 다 왕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에스 라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35절)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 릅니다.

As Ezra prepared for a long journey to return to Jerusalem, Ezra was ashamed to seek help from King Artaxerxes to protect his people from harm on the way. (8:22) He knew that his people might run into the dangers of bandits or enemies on the road but he fasted and prayed to God for their safe return to their homeland. (8:23)

Why didn't Ezra seek help from the king? (8:22) It is natural to ask why. Just because the king's help was sought, we should not assume that they did not depend on God and had weak faith. It may be that Ezra did not want to wait until they arrived at Jerusalem to begin restoration of the temple and the Jewish community. Maybe he did not seek the help of the king because he wanted to kick start the restoration effort of Jewish community among the people of Judah, the Levites and the priests even before they left Persia? Ezra may have expected God's helping hands to pull the Jewish people together while they prayed together and experienced hardships together.

During their return to Jerusalem, the people of Judah depended on each other for comfort. As they took each step forward in tears, they surely experienced the presence of their faithful God's hands, not the physical protection of the king's army or chariots. What do you think went through the minds of Ezra and the people of Judah when they worshipped God upon safe arrival at Jerusalem without the protection of King Artaxerxes? (8:35) We can feel our hearts swell by just imagn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tacebook 영기품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3

April 화 Tue

회개, 신앙의 삶을 지키게 합니다!

The Lifeline of a Faithful Lif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라 Ezra 9-10장



새266장(통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에스라는 성전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역겨운 일을 계속 따라 하는 실상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에스라 9:1-15

- 1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혯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 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 2 그들의 팔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하는지라
- 3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 4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 5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 6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 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 지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 7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 8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 게 하셨나이다
- 9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 10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 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 11 전에 주께서 주의 중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 12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소에게 물려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 주게 되리라하셨나이다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 14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 라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 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 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Reading insight

Ezra finally returns to Jerusalem with great anticipation of rebuilding the Temple. But to his great surprise, he learns that the people of Israel, including the priests and the Levites, have not kept themselves separate from the neighboring peoples with their detestable practices.

Ezra 9:1-15

- ¹ After these things had been done, the officials approached me and said,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priests and the Levites have not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peoples of the lands with their abominations, from the Canaanites, the Hittites, the Perizzites, the Jebusites, the Ammonites, the Moabites, the Egyptians, and the Amorites
- ² For they have taken some of their daughters to be wives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sons, so that the holy race has mixed itself with the peoples of the lands. And in this faithlessness the hand of the officials and chief men has been foremost."
- ³ As soon as I heard this, I tore my garment and my cloak and pulled hair from my head and beard and sat appalled.
- 4 Then all who trembled at the words of the God of Israel, because of the faithlessness of the returned exiles, gathered around me while I sat appalled until the evening sacrifice.
- 5 And at the evening sacrifice I rose from my fasting, with my garment and my cloak torn, and fell upon my knees and spread out my hands to the LORD my God,
- 6 saying: "O my God, I am ashamed and blush to lift my face to you, my God, for our iniquities have risen higher than our heads, and our guilt has mounted up to the heavens.
- From the days of our fathers to this day we have been in great guilt. And for our iniquities we, our kings, and our priests have been given into the hand of the kings of the lands, to the sword, to captivity, to plundering, and to utter shame, as it is today.
- ⁸ But now for a brief moment favor has been shown by the LORD our God, to leave us a remnant and to give us a secure hold within his holy place, that our God may brighten our eyes and grant us a little reviving in our slavery.
- 9 For we are slaves. Yet our God has not forsaken us in our slavery, but has extended to us his steadfast love before the kings of Persia, to grant us some reviving to set up the house of our God, to repair its ruins, and to give us protection in Judea and Jerusalem.
- $^{\rm 10}$ "And now, O our God, what shall we say after this? For we have forsaken your commandments,
- 11 which you commanded by your servants the prophets, saying, 'The land that you are entering, to take possession of it, is a land impure with the impurity of the peoples of the lands, with their abominations that have filled it from end to end with their uncleanness.
- 12 Therefore do not give your daughters to their sons, neither take their daughters for your sons, and never seek their peace or prosperity, that you may be strong and eat the good of the land and leave it for an inheritance to your children forever.'
- 13 And after all that has come upon us for our evil deeds and for our great guilt, seeing that you, our God, have punished us less than our iniquities deserved and have given us such a remnant as this,
- 14 shall we break your commandments again and intermarry with the peoples who practice these abominations? Would you not be angry with us until you consumed us, so that there should be no remnant, nor any to escape?
- 15 O LORD, the God of Israel, you are just, for we are left a remnant that has escaped, as it is today. Behold, we are before you in our guilt, for none can stand before you because of thi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스라가 기도한 내용 중, 마음 속에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무엇 인가요? (6-15절)

When you read Ezra's prayer, what speaks to your heart? (9:6–15)

죄의 모습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 게 하시기를 원할까요?

What do you think God will is for those things in life that continue to keep people in sin?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 정광원(NY)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 송지혜(NY)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Would you like to be freed from sin?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들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통하고 참담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받게 됩니다.(1-3절) 이 소식에 그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너무 기가 막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습니다. 저녁 제사 시간이 되었을 때, 에스라는 찢어진 옷 그대로 걸쳐 입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에스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4-5절)

비탄에 잠긴 에스라의 모습...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격분하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더 간절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며 호소하면서, 지은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 는 에스라의 모습까지 다가옵니다.(6-15절)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에 에스라의 결연함과 진솔함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 봅니다! 죄와 공존하는 신앙의 삶,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Ezra is shocked to hear that the people of Israel, including the priests and the Levites, were engaged in detestable practices with neighboring gentiles (9:1–3). Upon hearing this, Ezra tears his tunic and cloak, pulls hair from his head and beard and sits down appalled. When the time of evening sacrifice arrives, he falls on his knees and starts to pray still wearing his torn tunic and cloak. What do you think Ezra felt at that time? (9:4–5)

I sense a person who is crying out to God overwhelmed by grief, outraged, and utterly broken hearted. I also see Ezra who pours out his heart to God in confession, confessing his sins and sins of the people, asking God for mercy and grace (9:6–15). In meditating on Ezra's prayer, I also sense a firm determination and sincerity of his heart. Through the text for today, I ask my self this question: What makes people to live in sin even as believers? What prevents people from leaving the life of sin?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	1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4

April 수 Wed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

A Prayer Seeking God's Promise

통독본문 Reading Plan

느헤미야 Nehemiah 1장



새366장(통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공을 거두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중책을 맡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께 슬픔에 잠긴 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1-11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 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 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Reading insigh

Nehemiah, who was the cupbearer to the Persian King Artaxerxes, hears the news of the remnant people in Jerusalem from Hanani, one of his brothers, and offers a prayer to God in sorrow.

Nehemiah 1:1-11

- ¹ The words of Nehemiah the son of Hacaliah. Now it happened in the month of Chislev, in the twentieth year, as I was in Susa the capital,
- ² that Hanani, one of my brothers, came with certain men from Judah. And I asked them concerning the Jews who escaped, who had survived the exile, and concerning Jerusalem.
- ³ And they said to me, "The remnant there in the province who had survived the exile is in great trouble and shame. The wall of Jerusalem is broken down, and its gates are destroyed by fire."
- ⁴ As soon as I heard these words I sat down and wept and mourned for days, and I continued fasting and praying before the God of heaven.
- ⁵ And I said, "O LORD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covenant and steadfast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 6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of your servant that I now pray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the people of Israel your servants, confessing the sins of the people of Israel, which we have sinned against you. Even I and my father's house have sinned.
- ⁷ We have acted very corruptly against you and have not kept the commandments, the statutes, and the rules that you commanded your servant Moses.
- 8 Remember the word that you commanded your servant Moses, saying, 'If you are unfaithful, I will scatter you among the peoples,
- 9 but if you return to me and keep my commandments and do them, though your outcasts are in the uttermost parts of heaven, from there I will gather them and bring them to the place that I have chosen, to make my name dwell there.'
- 10 They are your servants and your people, whom you have redeemed by your great power and by your strong hand.
- ¹¹ O Lord, let your ear be attentive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s who delight to fear your name, and give success to your servant today, and grant him mercy in the sight of this man."Now I was cupbearer to the k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동족들의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5-11절)

What did Nehemiah prayed for after hearing the news of his people in Jerusalem? (1: 5–11)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 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나요? (10절)

For whom does God teach us to pray through the text today? (1: 10)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Voices from The Hill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진성인(NY)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 유화성(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위로의 하나님 God of Comfort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신앙적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 하가라의 아들로서 바빌론 문화와 부모의 유대문화의 이중적인 가정 환경에서 성장한 유대인입니다. 어느 날 수산 성을 걷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동족들이 큰 환난과 능욕과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고 있다 는 소식을 접합니다.(2~3절)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탄 그대로 있다는 예상치 못한 고국의 참담한 소식에 그는 수일 동안 슬픔에 잠긴 채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3~4절)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5~11절) 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간구합니다.(8절)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9절) 모세가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기도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백성들도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들처럼, 여전히 이들도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이라고 기도합니다.(10절)

느헤미야가 자신 이름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것과 같이, 특별히 요즘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누구일까요? 그 분을 위해 중보기도하며만나보지 않겠습니까?

The name Nehemiah is a Hebrew name that means "comforted by God." Nehemiah was born after the fall of Judah as the son of Hachaliah and grew up as a bi-cultural person under the Babylon and Jewish culture. While he was in the citadel of Susa, he heard about the Jewish remnants back in Jerusalem who were living in great trouble and disgrace (vss. 2–3). After hearing that the wall of Jerusalem is broken down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with fire, he mourns and fasts some days and prays to God (1:3–4). For what does Nehemiah pray in this situation (1:5–11)?

He asks God to remember the promise that God gave to Moses (1:8). That promise was the promise of deliverance for those who return to God even if they may be at the farthest horizon (1:9). As Moses prayed to God in the wilderness for the people of Israel, Nehemiah also prays for Jerusalem and the people of Jerusalem. He prays for the opportunity to be with his people in Jerusalem and to help them in whatever way he can. He reminds God that they too are His servants and people like those people He redeemed from Egypt with great strength and mighty hand (1:10).

As Nehemiah prayed for God's comfort to be with the people of Israel and with Jerusalem, as his name suggests, who comes to your mind when you look at the people around you who may be in need of God's comfort today? Would you consider offering a prayer on their beha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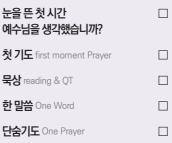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5

April 목 Thu

뜨거운 열정과 올곧은 믿음!

Burning Zeal and Unwavering Faith!

통독본문 Reading Plan

느헤미야 Nehemiah 2장



새411장(통473장) 아 내 맘속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시찰한 다음, 성 재건에 대한 계획을 관리자들과 함께 공유합니 다. 백성들은 이에 호응하나 대적들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느 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을 업신여기며 비웃습니다.

느헤미야 2:11-20

11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 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 은불탔더라

14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 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16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 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 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17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Reading insight

With the help of King Artaxerxes Nehemiah inspects the walls of Jerusalem and shares the plan of reconstruction with the officials. People in Jerusalem welcomes the proposal but Sanballat, Tobia and Geshem mock and ridicule Nehemiah's plan of wall reconstruction.

Nehemiah 2:11-20

- 11 So I went to Jerusalem and was there three days.
- 12 Then I arose in the night, I and a few men with me. And I told no one what my God had put into my heart to do for Jerusalem. There was no animal with me but the one on which I rode.
- 13 I went out by night by the Valley Gate to the Dragon Spring and to the Dung Gate, and I inspected the walls of Jerusalem that were broken down and its gates that had been destroyed by fire.
- 14 Then I went on to the Fountain Gate and to the King's Pool, but there was no room for the animal that was under me to pass.
- ¹⁵ Then I went up in the night by the valley and inspected the wall, and I turned back and entered by the Valley Gate, and so returned.
- 16 And the officials did not know where I had gone or what I was doing, and I had not yet told the Jews, the priests, the nobles, the officials, and the rest who were to do the work.
- 17 Then I said to them, "You see the trouble we are in, how Jerusalem lies in ruins with its gates burned. Come, let us build the wall of Jerusalem, that we may no longer suffer derision."
- 18 And I told them of the hand of my God that had been upon me for good, and also of the words that the king had spoken to me. And they said, "Let us rise up and build." So they strengthened their hands for the good work.
- 19 But when Sanballat the Horonite and Tobiah the Ammonite servant and Geshem the Arab heard of it, they jeered at us and despised us and said, "What is this thing that you are doing? Are you rebelling against the king?"
- **20** Then I replied to them, "The God of heaven will make us prosper, and we his servants will arise and build, but you have no portion or right or claim in Jerusal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밤에 수행원을 데리고 성벽 순찰을 나설 때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13-17절) What did Nehemiah discover when he went out to inspect the Jerusalem walls at night with few others? (2:13-17)

올곧은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How do you think God wants us to pray in order that we may have an unwavering faith?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우리감리교회, 김동현(NY) 웨체스터중앙교회, 김철식(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꿈을 이루는 올곧은 믿음

Unwavering Faith that Fulfills a Dream

의사가 환자의 상처 입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엄밀히 진찰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경호원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의 실태를 조사합니다.(12-14절) 그는 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면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과(12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18절)이 자신과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마음과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열정과 올곧은 믿음은 식어 버린 유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함께 힘을 내어 예루살렘 성 벽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기대하며 단칼에 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끊어버리고, 그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위해 성벽 일을 이루실 것을 적대자들에게 선포합니다.(20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As a doctor carefully examines the patie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tent of an incurred injury, Nehemiah takes the time to carefully assess the condition of the damaged walls of Jerusalem (2:12–14). As he examines the walls, he feels God placing in his heart a burning zeal (2:12) and the assurance that "the gracious hand of God" is with him and the people of Judah in Jerusalem. He then shares what he felt and the vision with the people in Jerusalem.

The burning zeal and unwavering faith that God gave Nehemiah moves the people of Judah who were in despair and jumpstarts the project of rebuilding the Jerusalem walls. When the enemies show up to mock and ridicule the efforts, Nehemiah boldly declares to them that God will complete the project for the people of Judah (2:20). What do you think God will feel when God sees us being mocked and ridiculed for our efforts to fulfill the dreams that God has placed in our heart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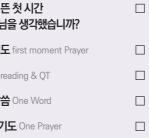
	_	
4		N.
	~	

ᄱᆚᆝᄋᄱᆉᆔᆉ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	--------



한말씀	One	Word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6

April 금 Fri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People who build the community of believers

통독본문 Reading Plan

느헤미야 Nehemiah 3-4장



새210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진행 과정을 다루기에 앞서 성벽 재건을 감당한 공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곧이어 본격적인 대적자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3:1-12

1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 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 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4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 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 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7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믈라댜와 메로놋 사람 야돈 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 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8그 다음은 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 등이 중수 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 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11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모압의 아들 핫숩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12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 헤스의 아들 살룪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Reading insigh

Prior to providing the progress report of Jerusalem wall reconstruction project, the list of names of those who worked on the reconstruction is provided. The work of wall reconstruction goes into full swing as well as the opposition of the enemies.

Nehemiah 3:1-12

- ¹ Then Eliashib the high priest rose up with his brothers the priests, and they built the Sheep Gate. They consecrated it and set its doors. They consecrated it as far as the Tower of the Hundred, as far as the Tower of Hananel.
- ² And next to him the men of Jericho built. And next to them Zaccur the son of Imri built.
- ³ The sons of Hassenaah built the Fish Gate. They laid its beams and set its doors, its bolts, and its bars.
- ⁴ And next to them Meremoth the son of Uriah, son of Hakkoz repaired. And next to them Meshullam the son of Berechiah, son of Meshezabel repaired. And next to them Zadok the son of Baana repaired.
- ⁵ And next to them the Tekoites repaired, but their nobles would not stoop to serve their Lord.
- ⁶ Joiada the son of Paseah and Meshullam the son of Besodeiah repaired the Gate of Yeshanah. They laid its beams and set its doors, its bolts, and its bars.
- ⁷ And next to them repaired Melatiah the Gibeonite and Jadon the Meronothite, the men of Gibeon and of Mizpah, the seat of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Beyond the River.
- 8 Next to them Uzziel the son of Harhaiah, goldsmiths, repaired. Next to him Hananiah, one of the perfumers, repaired, and they restored Jerusalem as far as the Broad Wall.
- ⁹ Next to them Rephaiah the son of Hur, ruler of half the district of Jerusalem, repaired.
- 10 Next to them Jedaiah the son of Harumaph repaired opposite his house. And next to him Hattush the son of Hashabneiah repaired.
- 11 Malchijah the son of Harim and Hasshub the son of Pahath-moab repaired another section and the Tower of the Ovens
- 12 Next to him Shallum the son of Hallohesh, ruler of half the district of Jerusalem, repaired, he and his daughter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성벽 재건 공사의 진행 과정보다 성벽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의 명 단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 까요? (1-5절)

Why do you think the Bible lists the names of those who worked on rebuilding the wall first before giving the progress report of the wall reconstruction? (3:1–5)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준을 세워 성도의 공동체를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나요?

Do you sense God's calling for you to care for the community of believers? If so, how?

God Moment

하 말씀 One Word

Voices from The Hil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권즈중앙감리교회, 이요섭(NY)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신앙의 기준과 규칙을 세우다

Setting up the Foundation and Rules of Faith

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의 시작을 북쪽의 양문(Sheep Gate)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차례로 성벽 재건 공사를 한 후 다시 양문에서 끝냈을까요?(1, 32절) 예부터 북쪽에서 공격해 오는 적들 때문에 북쪽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되어 여기서부터 공사를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제사에 바칠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이 바로 이양문이었기에,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공사의 시작과 끝을 양의 문으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예배)를 유대 공동체 중심에 세우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또한 성벽을 쌓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읽다 보면 (1-32절), 마치 음표 하나하나가 모여 장엄한 오케스트라 협주곡을 연주하는 듯합니다.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은 마치 교회를 이루는 그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에베소서 2:21-22)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신실한 예배드림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신앙의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나요?

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Why did Nehemiah start the wall reconstruction from the Sheep Gate that is located in the north side and proceeded in counter-clockwise direction and finish also at the Sheep Gate (3:1, 32)? It could be that many enemies traditionally attacked from the north side, causing the northern wall to completely crumble and be left in ruins. Another reason may be that it was through the Sheep Gate that people normally brought their sheep to be slaughtered for their sacrifices and so Nehemiah wanted the people to remember their Passover experience in Egypt just prior to their deliverance. Could it be that God being the One who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made the reconstruction project to start and end at the Sheep Gate, thereby placing the sacrifice to God (worship) at the very center of the life of Jewish community?

Also, as one reads the names of those who worked on rebuilding the wall (3:1–32), one can almost imagine various musical notes coming together in magical ways to create a wonderful orchestral symphony. Also, the list of those who worked on wall reconstruction is like church, the Body of Christ that is made up of many different parts. "We are carefully joined together in him, becoming a holy temple for the Lord. Through him you Gentiles are also being made part of this dwelling where God lives by his Spirit (Ephesians 2:21–22)."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needed to build up a community of believers is worship. What foundation do you think God wants us to have in order to for us to worship faithfully?

Journaling with Jesus

	フトル	L Thanka Nata
포르드	[검스	Thanks Note

0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7

April 토 Sat

장애물,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선물!

An obstacle is another gift from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느헤미야 Nehemiah 5-6장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느헤미야가 경제적인(고리대금) 문제로 발생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적 갈등을 해결하고 그 이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발생한 대적자들의 느헤미야 살해 음모를다룹니다. 하지만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 6:1-14

- 1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 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 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 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 었더라
- 3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 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 4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 답하였더니
- 5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 6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 7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 8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 9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 10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밖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 11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 12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 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 13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 14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댜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 서 하였노라

Reading insight

Nehemiah resolved the internal conflict in the Israeli community caused by the problem of loan sharking. After that, the conspiracy to murder Nehemiah by the adversaries, which occurred near the end of the reconstruction of the walls of Jerusalem, was dealt with. However, in 52 days, the wall construction was completed.

Nehemiah 6:1-14

- ¹ Now when Sanballat and Tobiah and Geshem the Arab and the rest of our enemies heard that I had built the wall and that there was no breach left in it (although up to that time I had not set up the doors in the gates),
- ² Sanballat and Geshem sent to me, saying, "Come and let us meet together at Hakkephirim in the plain of Ono." But they intended to do me harm.
- ³ And I sent messengers to them, saying, "I am doing a great work and I cannot come down. Why should the work stop while I leave it and come down to you?"
- 4 And they sent to me four times in this way, and I answered them in the same manner.
- ⁵ In the same way Sanballat for the fifth time sent his servant to me with an open letter in his hand.
- 6 In it was written, "It is reported among the nations, and Geshem also says it, that you and the Jews intend to rebel; that is why you are building the wall. And according to these reports you wish to become their king.
- ⁷ And you have also set up prophets to proclaim concerning you in Jerusalem, 'There is a king in Judah.' And now the king will hear of these reports. So now come and let us take counsel together."
- ⁸ Then I sent to him, saying, "No such things as you say have been done, for you are inventing them out of your own mind."
- ⁹ For they all wanted to frighten us, thinking, "Their hands will drop from the work, and it will not be done." But now, O God, strengthen my hands.
- 10 Now when I went into the house of Shemaiah the son of Delaiah, son of Mehetabel, who was confined to his home, he said, "Let us meet together in the house of God, within the temple. Let us close the doors of the temple, for they are coming to kill you. They are coming to kill you by night."
- ¹¹ But I said, "Should such a man as I run away? And what man such as I could go into the temple and live? I will not go in."
- 12 And I understood and saw that God had not sent him, but he had pronounced the prophecy against me because Tobiah and Sanballat had hired him.
- 13 For this purpose he was hired, that I should be afraid and act in this way and sin, and so they could give me a bad name in order to taunt me.
- 14 Remember Tobiah and Sanballat, O my God, according to these things that they did, and also the prophetess Noadiah and the rest of the prophets who wanted to make me afrai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적의 공격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 적 부담이 계속 쌓일 때, 느헤미 야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3, 8, 9, 11, 14절) How did Nehemiah cope with the anxiety and psycho-

How did Nehemiah cope with the anxiety and psychological burden of the enemy's attack? (6:3, 8, 9, 11, 14)

주변 환경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실 까요?

When you feel uneasy about your environment, how does God want you to handle the situation?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데이튼한인연합교회, 이승필(OH)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 유보현(OH)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서야 될 곳이 더 선명해지다!

The place to stand becomes clearer!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짝 다는 작업을 제외하고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소식을 대적자들이 듣게 됩니다.(1절) 이번에 대적자들은 이스라엘 재건의 중심축이었던 느헤미야를 살해함으로써 성벽 재건을 와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2절) 그들의 간계를 파악한 느헤미야가 네 번씩이나 회담을 거절하자, 다섯 번째 회담 제의에서 느헤미야가 반역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6~7절)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릴 것이라는 말로 협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갖자고 다시 요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제안 역시 거절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제거 음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하게 함으로써(10-12절) 그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음모도 느헤미야가 알게 됨으로써 무산되고 맙니다.

그가 대적자들에게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고 무엇보다 더 집중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농부가 과감하게 무성한 가지를 쳐서 포도 나뭇가지를 보다 작고 심플하게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적들의 방해공작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서야 될 곳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가야 할 곳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까? 질문해 봅니다.

Adversaries hear that Nehemiah and the Israelites have completed all the reconstruction of the walls, except for the installation of doors. (6:1) This time they plan to destroy the project of rebuilding the walls by killing Nehemiah, who is the central figure of Israel's reconstruction. (6:2) When Nehemiah, having grasped their plot, refused the talks four times, false rumors spread that Nehemiah has built a castle to revolt at the fifth conference offer. (6:6–7) They threaten to say that the rumor will be heard by the king and again demand that a meeting be held to resolve the matter. Nehemiah rejects this offer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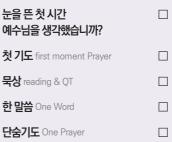
But the plot to get rid of Nehemiah is not over. The conspiracy to make him sin in the holy temple of God by bribing Shemaiah to falsely prophesy to Nehemiah (6:10-12) also failed by Nehemiah's insight.

It is very impressive to see him pray to God from moment to moment, focusing more than anything else without responding to his opponents. Just as farmers boldly are pruning lush branches to shape vine branches smaller and simpler to produce abundant fruit, the will of God is prioritized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the disruption of enemies. In this situation, Nehemiah is shown praying and asking for wisdom. Maybe because of the interference of enemies, God gives us an opportunity to focus more on where we should stand and to see where we should go more clearl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a	h
ч		Į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8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HTH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New Normal 시대의 교회는…

최 헌목사 (올네이션스 연합감리교회, KY)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읽는데, 새벽부터 정 오까지 중단하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장장 6시간 정도를 말씀을 서서 들은 것 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읽고 들으면 따분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듣고 있는 것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며 화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 게 나아가서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깨닫게 해주었더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모르고 무지해서 잘못을 해도 뭘 잘못 했는지 몰랐었는데, 말씀을 듣고 잘못한 것들을 깨달으니까 슬퍼 울은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 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 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8:10)고 했습니다.

여기서 울지 말라는 것은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앎이라"(8:12).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찢어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오면 이상하게 힘이 생깁니다. 일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은 진짜 잔치를 했습니다. 말씀 잔치와 먹는 잔치를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웅크렸습니다. 뭐든지 움켜쥐고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벌릴 수 있었고,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눅 24: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므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결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은 기쁨과 확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저절로 회개가 일어났으며 부활의 산증인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New Normal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 각 교회에게 주시는 표본입니다. 하라고 말할 필요 없고, 교회에 오라고 말할 필요 없는 교회. 아니 제발 그만하라는 말이 들리고, 제발 집에 좀 가라는 말이 들리는 교회. 봉사를 하도 많이 해서 그만하라고 하고,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교회. 아! 하늘의 부흥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입니다.

April 월 Mon

성실한 믿음의 규칙.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다!

Build a community of faith based on strict spiritual discipline!

통독본문 Reading Plan

느헤미야 Nehemiah 7장



새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 문짝을 다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 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다음, 육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이 아닌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성벽을 지키도록 했습 니다. 그리고 옛 귀환자의 명부를 확인합니다.

느헤미야 7:1-7, 66-73

1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사람들을세운후에

2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 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3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 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 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 지 못하였음이니라

5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 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 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 에서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먀와 나하 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왜와 느훔과 바 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6온 회중의 합계는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67 그 외에 노비가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 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이 있었고

68말이 칠백삼십육 마리요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요

69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였느 니라

70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천 드라크마와 대접 오십과 제사장의 의복 오백삼십 벌을 보물 곳가에 드렸고

71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이천이백 마네를 역사 곳가에 드렸고

72그 나머지 백성은 금이만 드라크마와 은이천 마네와 제사 장의 의복 육십칠 벌을 드렸느니라

73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지기들과 노래하 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Reading insight

With God's help the rebuilding of the walls of Jerusalem ended with installing the gates of the walls in 52 days. That wasn't the end. After Nehemiah completed the wall, he had the tribe of Levi guard it, even though they were not physically strong. And he checked the list of old returnees.

Nehemiah 7:1-7, 66-73

- ¹ Now when the wall had been built and I had set up the doors, and the gatekeepers, the singers, and the Levites had been appointed,
- ² I gave my brother Hanani and Hananiah the governor of the castle charge over Jerusalem, for he was a more faithful and God-fearing man than many.
- ³ And I said to them, "Let not the gates of Jerusalem be opened until the sun is hot. And while they are still standing guard, let them shut and bar the doors. Appoint guards from among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some at their guard posts and some in front of their own homes."
- 4 The city was wide and large, but the people within it were few, and no houses had been rebuilt.
- ⁵ Then my God put it into my heart to assemble the nobles and the officials and the people to be enrolled by genealogy. And I found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those who came up at the first, and I found written in it:
- ⁶ These were the people of the province who came up out of the captivity of those exiles whom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had carried into exile. They returned to Jerusalem and Judah, each to his town.
- ⁷ They came with Zerubbabel, Jeshua, Nehemiah, Azariah, Raamiah, Nahamani, Mordecai, Bilshan, Mispereth, Bigvai, Nehum, Baanah. The number of the men of the people of Israel:
- 66 The whole assembly together was 42,360,
- 67 besides their male and female servants, of whom there were 7,337. And they had 245 singers, male and female.
- 68 Their horses were 736, their mules 245,
- 69 their camels 435, and their donkeys 6,720.
- ⁷⁰ Now some of the heads of fathers' houses gave to the work. The governor gave to the treasury 1,000 darics of gold, 50 basins, 30 priests' garments and 500 minas of silver.
- 71 And some of the heads of fathers' houses gave into the treasury of the work 20,000 daries of gold and 2,200 minas of silver.
- 72 And what the rest of the people gave was 20,000 daries of gold, 2,000 minas of silver, and 67 priests' garments.
- ⁷³ So the priests, the Levites, the gatekeepers, the singers, some of the people, the temple servants, and all Israel, lived in their towns. And when the seventh month had come, the people of Israel were in their town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어떤음성을 들려주셨기에 한 번 더명단을 정리했을까요?

The list of those who returned from captivity also appears in Ezra chapter 2. What message did God give Nehemiah to inspire him to make one more list?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규 칙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나요? What specific rules does God tell you to practice to keep your faith strong?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벧엘국제연합감리교회, 이시용(OH) 새생명연합감리교회, 이병희(OH)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

People who make the world anew!

느헤미아는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먼저 성을 다스릴 사람을 세웁니다. 진실하고 충 성스럽고 신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인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 그들로 성을 지키도록 합니다.(1-2절)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규칙을 세웠을까요? 첫째, 높이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열지 말고 빗장을 닫아라! 둘째, 예루살렘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라! 셋째, 지정된초소에서 자기 집 맞은편까지 경비를 서라!(3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다음 일, 성벽을 지켜내고 백성들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앙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긴 여정을 함께 한 믿음의 사람들, 성벽 재건의 완성으로 큰 감동과 감격을 함께 나눌 사람들,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 그중에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가문별로 정리합니다.(5~6절)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땅, 척박하고 황량해 보이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 건하고 성벽을 세우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는 레위 지파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들, 종이었던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성벽을 지켜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존귀하며 복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와 유다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듯합니다.

Nehemiah completes the rebuilding of the wall and first raises up people to rule the city. He appoints Hanani and Hananiah, who are sincere, loyal, and religiously outstanding, to defend the castle. (7:1–2) After Nehemiah and the people asked God for wisdom, what rules did they establish to protect the walls? First, do not open the gates until the sun rises high and close the latch! Second, let the people of Jerusalem guard! Third, stand guard from the designated guard post to the opposite side of their house! (7:3)

Nehemiah does not end with rebuilding the walls, but takes a greater interest in protecting the walls and building up a community of faith so that the lives of the people are not disturbed. Now Nehemiah records a list of people of faith who have completed a long journey toward rebuilding the wall, people who shared great emotions with the completion of the wall reconstruction, people who made this era new, and those who returned to Jerusalem first. (7:5–6)

They are the names of those who came to the barren and desolate Jerusalem, a land of nothing, to rebuild the temple, erect walls, and raise a community of faith together. Among them are the tribe of Levi, but also included are those who worked in the temple as well as those who are slaves. God says to all those who establish his home in Jerusalem and guard the walls, "You are more holy, noble and blessed people than anyone else!" Nehemiah seems to be proclaiming this to the scattered Israeli diaspora and the Jewish communit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20

April 화 Tue

말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세웁니다!

The Word builds a life of strong faith!

통독본문 Reading Plan

느헤미야 Nehemiah 8-9장



새285장(통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갖고 와서 낭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백 성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1-12

- 1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 4 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댜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 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례뱌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 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 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 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 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 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 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 12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

Reading insight

The Israelites ask Ezra to come and read the book of the law. This indicates that the hunger for God's Word is growing among the people.

Nehemiah 8:1-12

- ¹ And all the people gathered as one man into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And they told Ezra the scribe to bring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that the LORD had commanded Israel.
- ² So Ezra the priest brought the Law before the assembly, both men and women and all who could understand what they heard, on the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 ³ And he read from it facing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from early morning until midday, in the presence of the men and the women and those who could understand. And the ears of all the people were attentive to the Book of the Law.
- ⁴ And Ezra the scribe stood on a wooden platform that they had made for the purpose. And beside him stood Mattithiah, Shema, Anaiah, Uriah, Hilkiah, and Maaseiah on his right hand, and Pedaiah, Mishael, Malchijah, Hashum, Hashbaddanah, Zechariah, and Meshullam on his left hand.
- ⁵ And Ezra opened the book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for he was above all the people, and as he opened it all the people stood.
- ⁶ And Ezra blessed the LORD, the great God, and all the people answered, "Amen, Amen," lifting up their hands. And they bowed their heads and worshiped the LORD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 ⁷ Also Jeshua, Bani, Sherebiah, Jamin, Akkub, Shabbethai, Hodiah, Maaseiah, Kelita, Azariah, Jozabad, Hanan, Pelaiah, the Levites, helped the people to understand the Law, while the people remained in their places.
- 8 They read from the book, from the Law of God, clearly, and they gave the sense, so that the people understood the reading.
- ⁹ And Nehemiah, who was the governor, and Ezra the priest and scribe, and the Levites who taught the people said to all the people, "This day is holy to the LORD your God; do not mourn or weep." For all the people wept as they heard the words of the Law.
- 10 Then he said to them, "Go your way. Eat the fat and drink sweet wine and send portions to anyone who has nothing ready, for this day is holy to our Lord. And do not be grieved,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 ¹¹ So the Levites calmed all the people, saying, "Be quiet, for this day is holy; do not be grieved."
- 12 And all the people went their way to eat and drink and to send portions and to make great rejoicing, because they had understood the words that were declared to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ter Gate? (8:1)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요? (1절) Why did the Israelites gather in the square before the Wa-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채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12절)

How did the lives of the Israelites change as their thirst for the Word was filled? (8:12)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근상(OH)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석(OH)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에,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 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나팔을 먼저 불어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에스라는 새벽부터 율 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3절)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아람어로 번역해 주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8절)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오랜 이방 생활로 인해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9절) 이는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늘의 하나님이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세운 언약을 지키시는 분, 크신 힘과 강한 팔로 인도하신 분… 이런 하나님께(느헤미야 1:5-10)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급함 은 신실한 믿음을 세우게 하였고, 이는 바른 믿음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12절) 아멘!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더 정결하고 소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On the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on the Feast of Trumpets, the people of Israel gather in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which means purity and revitalization. They blow the trumpet first, announce the beginning of the feast, proclaim the word of God, and offer sacrifices. Then Ezra begins reading the book of law at dawn. (8:3) The Levites translate the law read by Ezra into Aramaic and elaborate on its meaning. (8:8) This is because some of the Israelites at that time have forgotten their native language due to their long foreign life and speaking only Aramaic.

When the Israelites heard the interpretation of Ezra and the Levites, they burst into tears. As they repent of their sins, they come to know that the God of heaven they believe in is great and fearful, the One who keeps the covenant made to those who love the Lord, and the One who led them with great strength and strong arms. I wonder if it was the tears of joy of the Israelites who were grateful to God. (Nehemiah 1:5–10)

The passion and hunger for the Word shown by the Israelites gathered in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transformed them to build a strong faith, which led to a holy life. "So the people went away to eat and drink at a festive meal, to share gifts of food, and to celebrate with great joy because they had heard God's words and understood them." (8:12) Amen! What are some parts of your life that need to be cleansed and revitalized through the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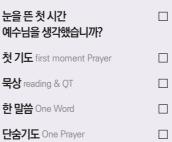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1

April 수 Wed

어약에 이봉하 사람들

Those who are sealed to the covenant

통독본문 Reading Plan

느헤미야 Nehemiah 10장



새552장(통358장) 아침해가 돋을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 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다짐했으며, 예배에 사 용될 물질을 드리며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28-39

28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 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 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 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 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 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31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 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 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2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삼분 의 일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 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 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 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35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맏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 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 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 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 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 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38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의 일 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39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 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 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Reading insigh

There is a list of those who have signed the covenant. The Israelites who returned from captivity have pledged to live a temple-centered life. They are determined to live as God's people, who are willing to devote themselves and provide materials for temple worship.

Nehemiah 10:28-39

- 28 "The rest of the people, the priests, the Levites, the gatekeepers, the singers, the temple servants, and all who have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peoples of the lands to the Law of God, their wives, their sons, their daughters, all who ha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 29 join with their brothers, their nobles, and enter into a curse and an oath to walk in God's Law that was given by Moses the servant of God, and to observe and do all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our Lord and his rules and his statutes.
- 30 We will not give our daughters to the peoples of the land or take their daughters for our sons.
- 31 And if the peoples of the land bring in goods or any grain on the Sabbath day to sell, we will not buy from them on the Sabbath or on a holy day. And we will forego the crops of the seventh year and the exaction of every debt.
- 32 "We also take on ourselves the obligation to give yearly a third part of a shekel for the service of the house of our God:
- 33 for the showbread, the regular grain offering, the regular burnt offering, the Sabbaths, the new moons, the appointed feasts, the holy things, and the sin offerings to make atonement for Israel, and for all the work of the house of our God.
- ³⁴ We, the priests, the Levites, and the people, have likewise cast lots for the wood offering, to bring it into the house of our God, according to our fathers' houses, at times appointed, year by year, to burn on the altar of the LORD our God, as it is written in the Law.
- 35 We obligate ourselves to bring the firstfruits of our ground and the firstfruits of all fruit of every tree, year by year, to the house of the LORD;
- ³⁶ also to bring to the house of our God, to the priests who minister in the house of our God, the firstborn of our sons and of our cattle, as it is written in the Law, and the firstborn of our herds and of our flocks;
- 37 and to bring the first of our dough, and our contributions, the fruit of every tree, the wine and the oil, to the priests, to the chambers of the house of our God; and to bring to the Levites the tithes from our ground, for it is the Levites who collect the tithes in all our towns where we labor.
- 38 And the priest, the son of Aaron, shall be with the Levites when the Levites receive the tithes. And the Levites shall bring up the tithe of the tithes to the house of our God, to the chambers of the storehouse.
- ³⁹ For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sons of Levi shall bring the contribution of grain, wine, and oil to the chambers, where the vessels of the sanctuary are, as well as the priests who minister, and the gatekeepers and the singers. We will not neglect the house of our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로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32~33절)

What are some signs that the faith of the Israelites is being restored? (10:32–33)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십일조는 어디에 쓰였나요? (37절)

The tithing was collected from the people who returned from captivity and rebuilt the country. How was the tithing spent? (10:37)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 TBS(OH)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 장이준(OH)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열매로 산 믿음이 증명됩니다

Fruit proves our living faith

나의 믿음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에 도 참여하게 됩니다. 삶에 기쁨을 맛보게 되고, 슬픔 많은 우리 삶이 감 사함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 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그 믿음의 성장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 는지 점검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맛본 영적 회복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갈망하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언약에 동참합니다. 언약에 서명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결단을 분명히 했으며 자신의 귀한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 데 뜻을 정합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거룩히 지키며, 성전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성전에 필요한 자재를 헌납하고 첫 열매와 십일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의 시간, 물질, 힘과 지혜를 즐거이 내어 드리는 헌신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이며, 건강 한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will our worship be restored by the Word, but we will also be inspired to participate in discipleship training. Our faith grows as we taste joy in life, and our sorrowful lives are filled with gratitude. But I want you to check where that belief is heading and how it's growing.

The spiritual restoration experienced by the Israelites is manifested in a temple–centered way of life. They participate in the covenant, realizing how important it is to live by longing for and obeying God's Word. By signing the covenant, they have made clear their decisions and are willing to share and dedicate their precious materials. They swear to prohibit marriage with the Gentiles, to keep the Sabbaths and feasts holy, to pay the temple taxes faithfully, to dedicate the necessary materials for the temple, and to pay the first fruits and tithing to God in a distinct manner.

Through the dedication to giving my time, material, strength, and wisdom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the church as the body of the Lord will stand firmly and a healthy community of faith will be preserve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а	и	
ш		

	_	
4		
u	Ζ.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2

April 목 Thu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People who settled in Jerusalem

통독본문 Reading Plan

느헤미야 Nehemiah 11-12장



새382장(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유다 땅에 흩어져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과 지역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1-11

1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2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3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4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웃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댜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5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 손이라

6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사백육십 팔 명이니 다용사였느니라

7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 요 마아세야의 오대 손이요 이디엘의 육대 손이요 여 사야의 칠대 손이며

8그 다음은 갑배와 살래 등이니 모두 구백이십팔 명 이라

9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스누 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10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11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 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 라욧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 손이며

Reading insight

List of people who settled in Judah, including Jerusalem, and names of places are recorded.

Nehemiah 11:1-11

- ¹ Now the leaders of the people lived in Jerusalem. And the rest of the people cast lots to bring one out of ten to live in Jerusalem the holy city, while nine out of ten remained in the other towns.
- ² And the people blessed all the men who willingly offered to live in Jerusalem.
- ³ These are the chiefs of the province who lived in Jerusalem; but in the towns of Judah everyone lived on his property in their towns: Israel, the priests, the Levites, the temple servants, and the descendants of Solomon's servants.
- 4 And in Jerusalem lived certain of the sons of Judah and of the sons of Benjamin. Of the sons of Judah: Athaiah the son of Uzziah, son of Zechariah, son of Amariah, son of Shephatiah, son of Mahalalel, of the sons of Perez;
- ⁵ and Maaseiah the son of Baruch, son of Col-hozeh, son of Hazaiah, son of Adaiah, son of Joiarib, son of Zechariah, son of the Shilonite.
- ⁶ All the sons of Perez who lived in Jerusalem were 468 valiant men.
- ⁷ And these are the sons of Benjamin: Sallu the son of Meshullam, son of Joed, son of Pedaiah, son of Kolaiah, son of Maaseiah, son of Ithiel, son of Jeshaiah,
- 8 and his brothers, men of valor, 928.
- ⁹ Joel the son of Zichri was their overseer; and Judah the son of Hassenuah was second over the city.
- 10 Of the priests: Jedaiah the son of Joiarib, Jachin,
- ¹¹ Seraiah the son of Hilkiah, son of Meshullam, son of Zadok, son of Meraioth, son of Ahitub, ruler of the house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 렘에 거주하도록 선정된 사람들 은 누구입니까? (1-2절) Which of the Israelites were chosen to dwell in Jerusalem? (11:1-2)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바깥일을 맡아 본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11절)

Who are the two people who did their best to take on the outside work of God's temple? (11:11)

God Momen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마당연합감리교회, 이송원(OH)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 성신(OH)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예루살렘 거주를 자원한 사람들

Those who volunteered to settle in Jerusalem

포로기 귀환시대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로 정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져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 정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11장 2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으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은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공격, 위협과 모욕의 표적이 되기 쉬웠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했으며, 거룩한 성의 주민에 걸맞은 엄격한 생활 기준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소속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가정을 운영하시고, 교회를 운영해가시는지 그 영적 신비를 보여줍니다. 비록 큰 부담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그곳에서 바로 서서 중보자로 설 때, 주변 모든 마을과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도 그렇게 운영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거룩하게 참여하는 동역자들을 지금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가족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삶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일군이요 증인들로 날개를 펼치고 당대히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When Israel was rebuilt in the era of captivity, some people were designated as residents of Jerusalem, while most of them were scattered and settled in their own towns. All the people who volunteered to settle in Jerusalem were especially blessed. (11:2) Jerusalem was the center of Israel, called the Holy City. However, people avoided settling and living there, because Jerusalem was an easy target of Gentile attacks, threats, and insults, and the inhabitants had to strive for the public good rather than increasing their fortunes. They were also required to have a strict standard of living worthy of the inhabitants of the holy city.

All the people blessed those who volunteered to belong to Jerusalem. It shows the spiritual mystery of how God runs the world, the family, and the church. Even with great burdens, they stood as mediators in the holy city Jerusalem. As they were scattered in all surrounding villages and towns and lived their life, intercessors were holding them spiritually so that they could live as a channel of God's blessing.

Likewise, God is running the church, family, society, and state in the same way. He is still looking for and calling coworkers who are holy to participate in God's work. God will listen to their intercession, and let their families and members of the faith community spread their wings as gospel workers and witnesses in their lives, and boldly live as a channel of bles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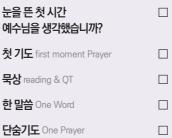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형	
ᆔᆔ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3

April 금 Fri

이방인과 단절하다

Separation from the gentiles

통독본문 Reading Plan

느헤미야 Nehemiah 13장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느헤미야의 개혁에 관한 내용으로 이방인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즉 이방인과의 통혼과 교제를 금하겠다는 약 속을 다짐했습니다.

느헤미야 13:23-31

- 23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 24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 ㅁ로
- 25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 26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 27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 납하겠느냐
- 28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 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 29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 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 30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 31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 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Reading insigh

Regarding Nehemiah's reformation, the Israelites declared their severance with the Gentiles and pledged a covenant given by God, that would prohibit intermarriage and fellowship with the Gentiles.

Nehemiah 13:23-31

- ²³ In those days also I saw the Jews who had married women of Ashdod, Ammon, and Moab.
- 24 And half of their children spoke the language of Ashdod, and they could not speak the language of Judah, but only the language of each people.
- 25 And I confronted them and cursed them and beat some of them and pulled out their hair. And I made them take oath in the name of God, saying, "You shall not give your daughters to their sons, or take their daughters for your sons or for yourselves.
- 26 Did not Solomon king of Israel sin on account of such women? Among the many nations there was no king like him, and he was beloved by his God, and God made him king over all Israel. Nevertheless, foreign women made even him to sin.
- 27 Shall we then listen to you and do all this great evil and act treacherously against our God by marrying foreign women?"
- 28 And one of the sons of Jehoiada, the son of Eliashib the high priest, was the son-in-law of Sanballat the Horonite. Therefore I chased him from me.
- 29 Remember them, O my God, because they have desecrated the priesthood and the covenant of the priesthood and the Levites.
- **30** Thus I cleansed them from everything foreign, and I established the duties of the priests and Levites, each in his work;
- ³¹ and I provided for the wood offering at appointed times, and for the first fruits. Remember me, O my God, for go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느헤미야가 율법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긴 것은 무엇입니까? (3절) What was the first thing Nehemiah put into action while carrying out reforms with the law? (13:3)

백성을 지도해나가는 느헤미야 총독으로부터 우리가 배울수 있 는 바람직한 지도자의 덕목은 무 었입니까?

What are the virtues of good leaders we can learn from Governor Nehemiah?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실천을 위한 짧은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OK)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엄준노(OK)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영향력은 순수성에서 나옵니다

Purity Precedes Influence

느헤미야의 개혁에 있어 그 핵심은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수성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향력을 그 백성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 민족들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개혁의 요소 가운데 우선 이방인과 결연히 단절함으로써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 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손자였던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사람 산발 랏의 사위가 되었는데 이것은 출애굽 시내산 언약에 명시된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명백히 거스르는 범죄였습니다. 당시 이방인과의 통혼은 그 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통혼은 국가 재건과 우호적인 외교정책에 있어서 그야말로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총독 느헤미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이방인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거나 그들과 연합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효과와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통하여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The key to Nehemiah's reform is to preserve pureness. This is because only when purity is preserved then the Israelites can exert the divine influence to themselves, to the next generation, and even to the people around them. Among the elements of many reforms, Nehemiah emphasized that first of all, by severing with the Gentiles, the purity of the lineage and the purity of the faith should be preserved.

One of the sons of Joiada, who was the grandson of the high priest at the time, became the son-in-law of Sanballat the Horonite. At that time, intermarriage with gentiles came to the point that it became very normal.

For Israel, intermarriage might have been the most convenient and efficient way to rebuild the state and establish friendly foreign policy, but governor Nehemiah made a bold decision and declared severance with the Gentiles. Gentiles were not allowed to naturalize as Jews or even associate with Israelites. It was to give up immediate prosperity and benefits and to hold onto the fact that keeping the law of God is the only way to rebuild Israel and exert influence as God's people through the purity of faith.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4

April 토 Sat

에스더가 왕비가 되다

Esther Becomes Ouee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터 Esther 1-2장



새35장(통50장) 큰 영화로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와스디는 왕비 자리에서 폐위되고 에스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왕후로 간택됩니다.

에스더 2:7-18

7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 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8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터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개의 수하에 속하니

9 헤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으레 주는 일곱 궁 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 더라

10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 르드개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11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 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12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3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14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5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 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6아하수에로 왕의 제칠년 시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 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18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 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Reading insight

Vashti was deposed from the throne of empress, and Esther is elected as the queen entirely according to God's providence

Esther 2:7-18

- ⁷ He was bringing up Hadassah, that is Esther, the daughter of his uncle, for she had neither father nor mother. The young woman had a beautiful figure and was lovely to look at, and when her father and her mother died, Mordecai took her as his own daughter.
- ⁸ So when the king's order and his edict were proclaimed, and when many young women were gathered in Susa the citadel in custody of Hegai, Esther also was taken into the king's palace and put in custody of Hegai, who had charge of the women.
- ⁹ And the young woman pleased him and won his favor. And he quickly provided her with her cosmetics and her portion of food, and with seven chosen young women from the king's palace, and advanced her and her young women to the best place in the harem.
- 10 Esther had not made known her people or kindred, for Mordecai had commanded her not to make it known.
- 11 And every day Mordecai walked in front of the court of the harem to learn how Esther was and what was happening to her.
- 12 Now when the turn came for each young woman to go in to King Ahasuerus, after being twelve months under the regulations for the women, since this was the regular period of their beautifying, six months with oil of myrrh and six months with spices and ointments for women--
- 13 when the young woman went in to the king in this way, she was given whatever she desired to take with her from the harem to the king's palace.
- 14 In the evening she would go in, and in the morning she would return to the second harem in custody of Shaashgaz, the king's eunuch, who was in charge of the concubines. She would not go in to the king again, unless the king delighted in her and she was summoned by name.
- 15 When the turn came for Esther the daughter of Abihail the uncle of Mordecai, who had taken her as his own daughter, to go in to the king, she asked for nothing except what Hegai the king's eunuch, who had charge of the women, advised. Now Esther was winning favor in the eyes of all who saw her.
- 16 And when Esther was taken to King Ahasuerus, into his royal palace, in the tenth month, which is the month of Tebeth, in the seventh year of his reign,
- 17 the king loved Esther more than all the women, and she won grace and favor in his sight more than all the virgins, so that he set the royal crown on her head and made her queen instead of Vashti.
- 18 Then the king gave a great feast for all his officials and servants; it was Esther's feast. He also granted a remission of taxes to the provinces and gave gifts with royal generosit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든 일련 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 은 무엇입니까? (9절)

What is the lesson that Esther gained through the entire process of becoming queen? (2:9)

에스더를 돌보고 기른 모르드개 는 어떤 품성의 사람이었습니까? (15절)

Who was Mordecai, who cared for and raised Esther? (2:15)

God Momen

스 One Word

Voices from The Hil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손태원(OK)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 김관영(OK)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A man who fears God

아하수에로 왕, 그는 바로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위용을 떨쳤던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Xerxes) 왕입니다. 에스더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한 왕과 그가 휘두르는 권력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그곳에 비록 피지배층,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통지지역 그리고 모든 지방 총독과 귀족, 장수를 초대한 6개월간의 호화로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한 제국의 찬란한 영화와 통치위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잔치 절정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왕비 와스디가 불복종하게 되어 결국 폐위되게 되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역사 전면에 서서히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14~15절)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를 세상에서 빛된 존재로 등장시키시며 활동하게 하십니다. 우리 얼굴이 밝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빛이 되어 우리가 거니는 곳에서 생명을 비추어내게 하십니다.

King Ahasuerus is the Persian King Xerxes renowned in world history. The book of Esther apparently shows the greatness of a king at the top of the world's power, but it also shows the truth that God still works through those who fear God. There are Israelites, who are descendants of a nation that has been brought captive, and among them are Mordecai and Esther.

Esther 1 begins by showing the absolute authority and mighty military power of King Ahasuerus. A six-month long luxurious feast was held with invited guests of governors, nobles and generals in 127 provinces from India to Ethiopia. The feast swelled with the splendor of the ruling power of an empire. But even there, God still worked. At the climax of the feast, due to the disobedience of Queen Vashti to the orders of King Ahasuerus, she was eventually deposed. This is God's providence. God slowly began to bring Mordecai and Esther, people of faith, to the forefront of history. Jesus speaks in Matthew 5 in the Sermon on the Moun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town buil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Instead they put it on its stand, and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Matthew 5:14-15) God brings those who fear Him into history as a light in the world. Not only do our faces radiate, but our whole life becomes a light, letting our life shine wherever we ar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5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개인 가정 소그룹

이성현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생애 처음 경험해 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들은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길 힘쓰라고 배웠는데, 벌써 일 년째 함께 모여 예배를 드 리지 못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하여야 하 는데, 함께 하지 못하므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질문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서 예배와 신앙 공동체에 대해 재 조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코로나 패데믹의 이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생활에 비교하고 합니다. 예 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도 지금 우리들과 비슷한 질문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함께 성전이라는 곳에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서 그들은 개인과 가정 중심의 소그룹으로 말씀과 기도의 신앙을 이어 갔습니다. 아 마 그들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을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하나 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오 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을 통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70년 만에 재건 합니다. 성전이 재건된 지 58년이 지난 후,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로 귀환하여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며 말씀으로 신앙 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13년 후, 3

차 귀화은 느헤미야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번 4월 호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성경에서는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집안의 16대손이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했습니다. '학사'란 말은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시절,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성경학자로 활동했던, 그중에서도 '익숙한' 사람, 즉 말씀에 있어서는 충분히 훈련받아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바벨론 포로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와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준비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과업을 감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 교회 건물이었고, 또한 함께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건물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성, 가정의 영성 그리고 소그룹의 영성'이 세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재건된 성전에 말씀으로 채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몸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가정에서의 나눔을 통해 개인의 영성이 가정의 영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영성은 소수의 사람들의 만남인 소그룹(속회, 목장, 샘터 등)으로의 연결을 통해 신앙공동체를 세워가야할 것입니다.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뉴노멀 시대에 에스라가 보여 준 본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 소그룹의 영성이 세워지는 "개가소" 영성 운동이 우리 가운데 활발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26

April 월 Mon

하만의 음모

Haman's Plot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더 Esther 3-4장



새25장(통25장) 면류관 벗어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만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임명되고, 왕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이 그에게 무릎꿇게 되지만 모르드개는 그 권력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3:2-13

- 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 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 니하니
- 3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 4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 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 5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 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 6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므로 하만이 모 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 7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닼월을 얻은지라
- 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 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 익하니이다
- 9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 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 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 10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 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 11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 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 12첫째 달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 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 13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 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 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Reading insight

Haman was appointed to the highest position. All his servants and people except the king should bow down before him, but Mordecai did not submit to his authority.

Esther 3:2-13

- ² And all the king's servants who were at the king's gate bowed down and paid homage to Haman, for the king had so commanded concerning him. But Mordecai did not bow down or pay homage.
- ³ Then the king's servants who were at the king's gate said to Mordecai, "Why do you transgress the king's command?"
- ⁴ And when they spoke to him day after day and he would not listen to them, they told Haman, in order to see whether Mordecai's words would stand, for he had told them that he was a Jew.
- ⁵ And when Haman saw that Mordecai did not bow down or pay homage to him, Haman was filled with fury.
- ⁶ But he disdained to lay hands on Mordecai alone. So, as they had made known to him the people of Mordecai, Haman sought to destroy all the Jews, the people of Mordecai, throughout the whole kingdom of Ahasuerus.
- In the first month, which is the month of Nisan, in the twelfth year of King Ahasuerus, they cast Pur (that is, they cast lots) before Haman day after day; and they cast it month after month till the twelfth month, which is the month of Adar.
- 8 Then Haman said to King Ahasuerus, "There is a certain people scattered abroad and dispersed among the peoples in all the provinces of your kingdom. Their law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every other people, and they do not keep the king's laws, so that it is not to the king's profit to tolerate them.
- ⁹ If it please the king, let it be decreed that they be destroyed, and I will pay 10,000 talents of silver into the hands of those who have charge of the king's business, that they may put it into the king's treasuries."
- ¹⁰ So the king took his signet ring from his hand and gave it to Haman the Agagite, the son of Hammedatha, the enemy of the Jews.
- ¹¹ And the king said to Haman, "The money is given to you, the people also, to do with them as it seems good to you."
- 12 Then the king's scribes were summoned on the thirteenth day of the first month, and an edict, according to all that Haman commanded, was written to the king's satraps and to the governors over all the provinces and to the officials of all the peoples, to every province in its own script and every people in its own language. It was written in the name of King Ahasuerus and sealed with the king's signet ring.
- 13 Letters were sent by couriers to all the king's provinces with instruction to destroy, to kill, and to annihilate all Jews, young and old, women and children, in one day, the thirteenth day of the twelfth month, which is the month of Adar, and to plunder their good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 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Why did Mordecai not bow down before Haman? (3:6)

왕이 허락한 하만의 악한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What was Haman's evil plan that the king allowed? (3:13)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Voices from The Hill

안 달금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오광석(OR)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신(PA) 목회자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다 Kneel only before God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절대권력인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 최고위 대신이 됩니다. 왕을 제외한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통행하는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산궁 대권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개는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모르드개는 주변의 그 어떤 설득과 충고에도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유대인임을 더욱 분명히 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세에 반기를 들고 복종하기를 거부한 모르드개를 향해 분노하게 되고, 끝내 유대인 말살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왕의 어인까지 받아낸 하만의 그 극악무도한 말살 시도를 듣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을 것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 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 최고점의 권력조차 넘어서도록 하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앉히 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제 그 본연의 사명의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기로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십니다.

Haman, son of Hammedada the Agagman, gained the trust of King Ahasuerus and became the highest official. Except for the king, all the people had to bow down before Haman when he passed by. Mordecai, who was just the gatekeeper of the fortress of Susa, did not kneel before Haman, even though it was the king's order.

Mordecai did not dwell on any persuasion and advice around him, but rather made it clear that he was a Jew. Haman was angry at Mordecai, who rebelled against his authority, and eventually devised a plan to exterminate all the Jews. Mordecai must have trembled when he heard Haman's heinous attempts to annihilate all the Jews. Haman had even received the king's signet ring. Mordecai tore his clothes, put on sackcloth and ashes, and went out into the city, wailing loudly and bitterly. At that time, God allowed the faith of those who fear Him to surpass even the highest powers of the world. Esther believed that it was God who put her in the queen's throne and realized her mission. She relied on God as she approached her king. Under any circumstances, God makes sure that those who have decided to kneel only before God will never kneel before the worl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7

April 화 Tue

에스더가 베푼 자치

Esther's banquet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더 Esther 5장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에스더는 신앙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 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게 하시고. 마침내 하만 의 계략을 꺾는데 에스더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더 5:1-12

- 1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 좌에 앉았다가
- 2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 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 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 3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 라하니
- 4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 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 5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 에가니라
- 6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터에게 이르되 그대 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 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 7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 러하니이다
- 8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 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 9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 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 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 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 11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 12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 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Reading insight

Esther came before the king with the strength and courage that came from her faith. God gave Esther the king's favor and finally used Esther's faith to break Haman's scheme.

Esther 5:1-12

- ¹ On the third day Esther put on her royal robes and stood in the inner court of the king's palace, in front of the king's quarters, while the king was sitting on his royal throne inside the throne room opposite the entrance to the palace.
- ² And when the king saw Queen Esther standing in the court, she won favor in his sight, and he held out to Esther the golden scepter that was in his hand. Then Esther approached and touched the tip of the scepter.
- 3 And the king said to her, "What is it, Queen Esther? What is your request? It shall be given you, even to the half of my kingdom."
- 4 And Esther said, "If it please the king, let the king and Haman come today to a feast that I have prepared for the king."
- 5 Then the king said, "Bring Haman quickly, so that we may do as Esther has asked." So the king and Haman came to the feast that Esther had prepared.
- 6 And as they were drinking wine after the feast, the king said to Esther, "What is your wish? It shall be granted you. And what is your request? Even to the half of my kingdom, it shall be fulfilled."
- 7 Then Esther answered, "My wish and my request is:
- 8 If I have found favor in the sight of the king, and if it please the king to grant my wish and fulfill my request, let the king and Haman come to the feast that I will prepare for them, and tomorrow I will do as the king has said."
- 9 And Haman went out that day joyful and glad of heart. But when Haman saw Mordecai in the king's gate, that he neither rose nor trembled before him, he was filled with wrath against Mordecai.
- 10 Nevertheless, Haman restrained himself and went home, and he sent and brought his friends and his wife Zeresh.
- 11 And Haman recounted to them the splendor of his riches, the number of his sons, all the promotions with which the king had honored him, and how he had advanced him above the officials and the servants of the king.
- 12 Then Haman said, "Even Queen Esther let no one but me come with the king to the feast she prepared. And tomorrow also I am invited by her together with the k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스더가 금식한 후 경험한 하나 님의 손길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What was the touch of God that Esther experienced after fasting? (5:3)

에스더가 기도로 준비한 후 경험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는 무엇이었습니까? (8절)

What was the wisdom and courage of God that Esther experienced after preparing through prayer? (5:8)

God Momen

한 말씀 One Word

Voices IIOIII THE TH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 김중혁(PA)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차명훈(P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Nothing should precede prayer

나의 결심과 외침이 진정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우고 되뇌이며 외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삶에서 고스란히 살아내는 길은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외친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침내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을 입는 내내 에스더의 손끝은 떨림 없이 차분하며 여유로 웠을 것이고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며 담대했을 것입니다. 대궐 뜰에서 왕을 알현하게 되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세상의 권력과 부요의 맛에 취해 살아가는 하만은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는 늘 즉흥적이고 더 많은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합니다. 그는 분노의 폭주기관차가 되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시로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의 은혜로 덧입힘 받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이 이러한 담대함과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Nothing other than prayer that can really activate my determination and will to exert their power. "I can do all things through the One who strengthens me," but the only way to live it in life is the power of prayer. "I will go to the king, even though it is against the law. And if I perish, I perish." Esther fasted for three days to pray before God. And on the third day after fasting, Esther finally put on the queen's robe. While wearing her robe, Esther's fingertips would have been calm and relaxed without trembling, and her heart would have been more peaceful and bolder than ever. Despite seeing the king in the courtyard and ensuring the king's full support, Esther is in no hurry. Esther shows that she is not ahead of prayer at any moment.

On the other hand, Haman, who lives without knowing God, is simply drunk on the world's power and riches, is always dissatisfied, and always caught up in anger. He is always spontaneous and thirsting for more popularity and recognition. He is just running like crazy like a runaway locomotive of rage.

We always have the Holy Spirit who mediates and helps us. That is why we are covered with the grace of boldness in prayer. It is to be transformed into a person of faith that the world cannot subdue. I sincerely wish that all of us believers and children in this age will become people of such boldness and peac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a	h
ч		Į

	_	
4		N.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u>}?</u>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yer
------------------------	-----



단숨기도	One	Prayer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8

April 수 Wed

왕이 모르드개를 높이다

The king exalts Mordecai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더 Esther 6-7장



새374장(통503장) 고요한 바다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못이루다가 역대 궁중 일기를 통해 모르드 개의 업적에 대해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공로에 보 답하게 되는데 대적 하만을 통해 모르드개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 6:1-11

- 1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 2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 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 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 3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 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 4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 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 5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 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 6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 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 에 누구리요 하고
- 7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 8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 9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 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 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 10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 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 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 11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 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워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Reading insight

King Ahasuerus was unable to sleep, yet he rediscovered the work of Mordecai in the book of the chronicles. The king rewarded Mordecai for his accomplishment, and he was exalted through the adversary Haman.

Esther 6:1-11

- ¹ On that night the king could not sleep. And he gave orders to bring the book of memorable deeds, the chronicles, and they were read before the king.
- ² And it was found written how Mordecai had told about Bigthana and Teresh, two of the king's eunuchs, who guarded the threshold, and who had sought to lay hands on King Abasuerus.
- ³ And the king said, "What honor or distinction has been bestowed on Mordecai for this?" The king's young men who attended him said, "Nothing has been done for him."
- 4 And the king said, "Who is in the court?" Now Haman had just entered the outer court of the king's palace to speak to the king about having Mordecai hanged on the gallows that he had prepared for him.
- 5 And the king's young men told him, "Haman is there, standing in the court." And the king said, "Let him come in."
- ⁶ So Haman came in, and the king said to him, "What should be done to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And Haman said to himself, "Whom would the king delight to honor more than me?"
- ⁷ And Haman said to the king, "For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 8 let royal robes be brought, which the king has worn, and the horse that the king has ridden, and on whose head a royal crown is set.
- ⁹ And let the robes and the horse be handed over to one of the king's most noble officials. Let them dress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and let them lead him on the horse through the square of the city, proclaiming before him: 'Thus shall it be done to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 10 Then the king said to Haman, "Hurry; take the robes and the horse, as you have said, and do so to Mordecai the Jew, who sits at the king's gate. Leave out nothing that you have mentioned."
- 11 So Haman took the robes and the horse, and he dressed Mordecai and led him through the square of the city, proclaiming before him, "Thus shall it be done to the man whom the king delights to hono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모르드개를 존귀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1~2절)

What did God do to honor Mordecai? (6:1-2)

대적 하만을 통해 모르드개를 친히 높임받는 장면을 보면서 얻게되는 교훈은? (11절)

What lessons are learned from watching Mordecai exalted through his enemy Haman? (6:11)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덕(PA)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 박성순(P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대적 앞에서 높이시는 하나님

God who exalts him before his enem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에스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에스더는 왕의 호의를 받아 안전을 보장받고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있다는 약속에도 서두르지 않았고, 왕과 하만을 초대할 자치를 준비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통치실록을 다시 읽게 되고 과거 모르드개의 선한 업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은 모르드개에게 그 공로에 걸맞은 상을 내리고 대우를 하고자 했고,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르드개를 그토록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도리어 모르드개를 높이는 일등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도륙하려는 대적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개를 존귀케 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편 23:5)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만 취해 살아가고 있는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개를 높이게 하셨습니다. 역전도 이러한 역전이 없습니다. 하만은 자기 손으로 왕의 하사한 옷을 모르드개에게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내의 행차를 진두지휘하며 모르드개의 받은 영예를 그 입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선할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tirelessly. Esther, the woman of prayer, waits for God's time. Esther is not in a hurry despite the king's promise that she would be favored by the king to ensure security and to meet any of her demands. She prepares a feast and invites the king and Haman.

That night God is still working. When King Ahasuerus is unable to sleep, he rereads the book of the chronicles and discovers the good works of Mordecai in the past. The king wants Mordecai to be rewarded and treated for his merit, and the method comes from Haman, not from anyone else. Haman, who hates Mordecai so much that he tries to kill him, rather becomes the number one contributor to Mordecai. It is God's providence that is truly amazing because Mordecai is honored through Haman, the enemy who wants to exterminate the Jews.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Psalm 23:5) God makes Mordecai exalted by Haman, who is always self-centered and lives by only his thoughts. It's an amazing turn of events. With his own hands, Haman clothed Mordecai with the king's savior's clothing, made him ride on the king's horse, commanded his journey through the city, and shouted with his mouth the honor Mordecai received. It is God who works when we pray. He is the faithful God who always leads us on the way to be goo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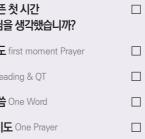
h

	_		
d	6	ĸ.	
	7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ነ!?

첫기	모	first	mom	ent	Praye	r
----	---	-------	-----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9

April 목 Thu

유다사람의 살 길이 열리다

The pathway for the people of Judah to survive is ope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터 Esther 8장



새542장(통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아직 발효 상태인 상황에서 에스 더는 다시 한번 믿음의 힘으로 왕에게 호소했고 마침내 첫 번째 조서를 이기는 새로운 조서로 유대인은 구원받게 됩니다.

에스더 8:3-8. 11-17

3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 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 며 구하니

4왕이 에스터를 향하여 금 규를 내미는지라 에스터가 일어 나 왕 앞에 서서

5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 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 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6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니

7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 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11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13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 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 지라

14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15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베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Reading insight

The king's decree to exterminate the Jews was still in effect. Esther once again appealed to the king with the power of faith, and finally the Jews were saved with a new decree overruling the first decree.

Esther 8:3-8, 11-17

- ³ Then Esther spoke again to the king. She fell at his feet and wept and pleaded with him to avert the evil plan of Haman the Agagite and the plot that he had devised against the Jews.
- 4 When the king held out the golden scepter to Esther,
- ⁵ Esther rose and stood before the king. And she said, "If it please the king, and if I have found favor in his sight, and if the thing seems right before the king, and I am pleasing in his eyes, let an order be written to revoke the letters devised by Haman the Agagite, the son of Hammedatha, which he wrote to destroy the Jews who are in all the provinces of the king.
- ⁶ For how can I bear to see the calamity that is coming to my people? Or how can I bear to see the destruction of my kindred?"
- ⁷ Then King Ahasuerus said to Queen Esther and to Mordecai the Jew, "Behold, I have given Esther the house of Haman, and they have hanged him on the gallows, because he intended to lay hands on the Jews.
- ⁸ But you may write as you please with regard to the Jews, in the name of the king, and seal it with the king's ring, for an edict written in the name of the king and sealed with the king's ring cannot be revoked."
- 11 saying that the king allowed the Jews who were in every city to gather and defend their lives, to destroy, to kill, and to annihilate any armed force of any people or province that might attack them, children and women included, and to plunder their goods,
- 12 on one day throughout all the provinces of King Ahasuerus, on the thirteenth day of the twelfth month, which is the month of Adar.
- 13 A copy of what was written was to be issued as a decree in every province, being publicly displayed to all peoples, and the Jews were to be ready on that day to take vengeance on their enemies.
- 14 So the couriers, mounted on their swift horses that were used in the king's service, rode out hurriedly, urged by the king's command. And the decree was issued in Susa the citadel.
- 15 Then Mordecai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king in royal robes of blue and white, with a great golden crown and a robe of fine linen and purple, and the city of Susa shouted and rejoiced.
- 16 The Jews had light and gladness and joy and honor.
- 17 And in every province and in every city, wherever the king's command and his edict reached, there was gladness and joy among the Jews, a feast and a holiday. And many from the peoples of the country declared themselves Jews, for fear of the Jews had fallen on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유다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

What is the content of the new decree that preserved the life of the Jews? (8:11)

유다인이 존귀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본토백성의 반응 은? (17절)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people who were afraid to see the Jews become honorable? (8:17)

God Moment

안 달금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필라등대교회, 조병우(PA)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고요한(R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가장 급한 소식, 복음입니다

The Gospel is the most urgent news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유대인을 도륙하려는 그의 계략으로 발행된 조서는 왕의 어인이 찍혀서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 앞에 나아가 울며 간청하였고, 이미 반포된 조서는 취소할수 없으니, 그 계략을 막아낼 새로운 조서를 반포할수 있도록 권한을 받아냅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유다 백성이 공격하는 적을 맞서 싸울수 있으며, 공격하는 그들의 식구까지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그 소식은 슬픔이 기쁨으로 뒤바뀌는 복음이었습니다. 진 멸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날에 함께 모여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얼마나 빨리 그 넓고 넓은 페르시아 각 지방 구석구석까지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로 받게 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 그 복음은 가장 빠르고 급히 이 세상 땅끝에 전해져야만 하는 소식입니다. 나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급히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Haman died by hanging on a tree, but the decree issued by his ploy to destroy the Jews was still in effect with the king's signet ring stamped on it. In a very critical situation, Queen Esther knew that her own mission was still incomplete. Esther again went before the king and cried and pleaded, and since the already promulgated edict couldn't be revoked, she was empowered to issue a new decree to stop the ploy. The content of the new decree was that the people of Judah were able to fight against the attacking enemy and were given the authority to destroy their families and take their property.

For the Jews, the news was a gospel in which sorrow turned into joy. On the day when they were forced to be destroyed, they were able to gather together to defend themselves, thereby preserving life. The question now was how quickly the news of joy would reach every corner of the vast Persia region.

This event also applies to the gospel of the cross that has been passed down to us. The good news is that we have been saved from eternal punishment through the event of the Atonement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This gospel is the news that must be delivered to the ends of the earth in the fastest and most urgent ways. The gospel has been preached to you. Now, you must never forget that you have a great mission to preach the Gospel with urgenc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a	h
ч		Į

	_	_		
4	r	5	ь	
		7		

	-	L	
٩		p	

눈을뜬첫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	도 first	moment	Prayer
-----	---------	--------	--------



한말씀	One	Word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30

April 금 Fri

부림절

The Festival of Purim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터 Esther 9-10장



새520장(통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하만의 음모로 꾸며진 조서가 시행되는 날,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 당하게 될 그날에 생명을 보존케 하는 새로운 조서가 전해지고 유 대인들은 스스로 방어하고 적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9:20-31

20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 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1 한규례를세워해마다아달월십사일과십오일을지키라 22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 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 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23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24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 미암아

27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 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 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30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백이십칠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31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 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Reading insigh

On the day when the Jews were about to be slaughtered by the enforcement of Haman's decree, a new decree was delivered to preserve the lives of the Jews. The Jews were able to defend themselves and defeat their enemies.

Esther 9:20-31

- 20 And Mordecai recorded these things and sent letters to all the Jews who were in all the provinces of King Ahasuerus, both near and far.
- ²¹ obliging them to keep the fourteenth day of the month Adar and also the fifteenth day of the same, year by year,
- 22 as the days on which the Jews got relief from their enemies, and as the month that had been turned for them from sorrow into gladness and from mourning into a holiday; that they should make them days of feasting and gladness, days for sending gifts of food to one another and gifts to the poor.
- 23 So the Jews accepted what they had started to do, and what Mordecai had written to them.
- 24 For Haman the Agagite, the son of Hammedatha, the enemy of all the Jews, had plotted against the Jews to destroy them, and had cast Pur (that is, cast lots), to crush and to destroy them.
- ²⁵ But when it came before the king, he gave orders in writing that his evil plan that he had devised against the Jews should return on his own head, and that he and his sons should be hanged on the gallows.
- ²⁶ Therefore they called these days Purim, after the term Pur. Therefore, because of all that was written in this letter, and of what they had faced in this matter, and of what had happened to them,
- 27 the Jews firmly obligated themselves and their offspring and all who joined them, that without fail they would keep these two days according to what was written and at the time appointed every year,
- 28 that these days should be remembered and kept throughout every generation, in every clan, province, and city, and that these days of Purim should never fall into disuse among the Jews, nor should the commemoration of these days cease among their descendants.
- 29 Then Queen Esther, the daughter of Abihail, and Mordecai the Jew gave full written authority, confirming this second letter about Purim.
- ³⁰ Letters were sent to all the Jews, to the 127 provinces of the kingdom of Ahasuerus, in words of peace and truth,
- ³¹ that these days of Purim should be observed at their appointed seasons, as Mordecai the Jew and Queen Esther obligated them, and as they had obligated themselves and their offspring, with regard to their fasts and their lament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유다민족이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위기를 넘어섰을 때 모든 민족이 유다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When the people of Judah overcame all crises by the providence of God, all nations became afraid of the people of Judah. What is the spiritual meaning of this?

부림절은 무엇이며 영적의미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estival of Purim and what is its spiritual meaning?

God Moment

한 말씀 One Word

Voices from The Hill

전 글금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빌한인연합감리교회, 신규석(SC)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배연택(S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나의 부림절은 언제입니까?

When is your Festival of Purim?

열두째 달인 아달월 13일은 유대인이 원수들의 손에 죽임당하는 날이 었지만, 유대인이 원수들을 없애는 날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뀐 그날, 바로 그날이 부림절입니다. 원수 하만은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대인을 없앨 날을 받았으나, 그날은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구원의 날, 새 생명을 얻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기쁨의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는 부림절을 명절로 확정하며 그 자손 대대로 금식하며 슬피울면서 그날을 지키도록 명시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기쁨의 날이 분명 있습니다. 그날은 나의 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감격과 감사함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요 영원히 죄의 굴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새 생명을 얻었으며, 나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The twelfth month, the 13th of Adal, was the day when the Jews were supposed to be massacred at the hands of their enemies, but it turned into the day when the Jews destroyed their enemies. The day when sorrow turned into joy and a funeral day turned into a feast day is the Festival of Purim. Haman chose a day to eliminate the Jews by throwing a dice called the "Pur", but that day became the day of salvation and new life through Mordecai and Esther's determination and actions of faith.

It must be a day of joy. However, Mordecai and Queen Esther confirmed the Festival of Purim as a holiday and specified that their descendants should observe the day while fasting and weeping.

Each of us also has a day of joy in receiving Jesus as our Lord and Savior and gaining a new identity as a child of God. That day will be your Purim. We must not forget the thrill and gratitude of that day, and we also must not forget that we are sinners who cannot stand on their own. We should not forget that we were once forced to live in the bondage of sin. Only by the merit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have we received new life, and we have been justified freely by the grace of God, not by our own will.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십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포기하지 않았더니… I 에스라 6:1-18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서야 될 곳이 더 분명해지다! I 느헤미야 6:1-19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중보의 자리로 승리합니다 I 느헤미야 11:1-6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가장 시급한 일, 복음 전도입니다 I 에스더 8:9~17

포기하지 않았더니…



새 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새212장(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 여는 질문

일이 잘 안 풀리는 일을 당했는데, 나중에 전화위복이 된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2 본문 이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먼저 살 집과 동네를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 (BC 538)으로 귀환하고 나서 다리우스 2년, 곧 520년까지 성전 재건은 중단됩니다. 공사 중단 기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16년이 넘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예언자가 돕습니다.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자,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이 마지막 걸림돌이 됩니다.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닷드네 총독이 보낸 서신을 받아본 다리우스는 어떻게 일을 처리했을까요? 다리우스는 편지에 언급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서고에서 확인토록 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허락이 첫째고, 둘째는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댈 터이니,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8절) 성전은 다리우스 왕 6년, 516년, 착공한지, 4년만에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전화위복이라 하나요? 닷드내 총독의 방해는 공식 관리의 중단 요구였습니다. 공식 요구라고 포기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방해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되나 봐,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경우도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전화위복 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할 일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실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3 말씀속으로

- 1.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3-5절)
- 2. 다리우스는 내린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6-12절)

4 삼속으로

- 1.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쉽게 포기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실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타입인가요?
- 2.일이 안 풀릴 때,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원칙을 세운다면 어떤 원칙을 세우고 싶으세요?

5 암송 구절 -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6 자녀와 나눔

일이 잘 안될 때, 얼마나 힘드니? 엄마도 아빠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니? 그냥 포기하니? 아니면…?

서야 될 곳이 더 분명해지다!



새 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1 여는 질문

- 1. 당신은 버킷리스트 중에 1번은 무엇인가요?
- 2.1번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본문 이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 갈등으로 발생한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의 도 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중지시키려는 대적자들의 음모가 가면 갈수록 더 교활해지고, 더 끈질긴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짝 다는 작업을 제외하고, 모든 성벽 재건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6:1) 이 소식을 접한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인들의 지도자 게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느헤미야를 살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와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6:2)

산발랏과 적들은 '오노평지'(6:2)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자는 제안을 하지만 적의 음모를 간파한 느 헤미야는 단호하게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6:3) 네 번씩이나 회담을 거절하자, 다섯 번째 회담 제의에서 느헤미야가 반역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6:4-7)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릴 것이라는 말로 협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갖자고 다시 요구합니다. 느 헤미야는 이 제안 역시 거절합니다.(6:8-9) 그러나 느헤미야 제거 음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스마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하게 함으로써 이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죄를 범하게 하고자 했으나 이 음모도 무산되고 맙니다.(6:10-12)

느헤미야가 대적자들과 일일이 맞대응 하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농부가 과감하게 무성한 가지를 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적의 방해공 작에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적들의 방해공작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서야 될 곳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선 그의 솔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3 말씀속으로

- 1.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으로 심리적 부담이 많았을 텐데, 그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6:3, 8, 9, 11, 14)
- 2. 느헤미야가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4 삼속으로

- 1. 믿음의 성숙을 위해 한 가지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지적 하실까요?
- 2.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5 암송 구절 - 요한복음 15: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 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 자녀와 나눔

최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중보의 자리로 승리합니다



새250장(통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새41장(통470장) 내 평생에 가는길

1 여는 질문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로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2 본문이해

느헤미야 11장 말씀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과 지역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기 귀환시대에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로 정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흩어져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 정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 불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먼저 통치자들이 거주하기 알맞은 장소였으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사위를 던져 백성의 십분의 일을 뽑아 예루살렘에 살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으로 선정하는 또다른 방법은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원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11:2)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말해 성전, 경제, 군사,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은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공격, 위협과 모욕의 표적이 되기 쉬웠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보다 공공의 유익에 힘써야 했으며, 거룩한성의 주민에 걸맞는 엄격한 생활기준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스스로 자원하여 소속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빌어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가정을 운영하시고,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지 그 영적 신비를 보여줍니다. 비록 큰 부담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그 곳에서 바로 서서 중보자로 기도자로 지켜질 때, 주변 모든 마을과 성읍으로 흩어져 삶의 현장을 감당해야 하는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붙들어주는 영적 신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도 그렇게 운영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일하심 가운데 거룩하게 참여하는 동역자들을 지금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믿음의 지체들이 그들의 선교의 현장 되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군이요 증인들로 날개를 펼치고 담대히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3 말씀 속으로

- 1.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 2. 거룩한 성이라 불리우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기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삶속으로

- 1.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나요?
- 2.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기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시는 한 영혼,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5 암송 구절 - 느헤미야 11:2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6 자녀와 나눔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힘이 날 것 같으니?

가장 시급한 일, 복음 전도입니다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새499장(통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1 여는 질문

살아오면서 듣게 된 소식가운데 반갑고 가장 기뻤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2 본문이해

유대인들에게 있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소리가 환호의 함성소리가 되는 그 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만은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유대인을 도륙하려는 그의 계략으로 발행된 조서는 왕의 어인이 찍혀서 여전히 발효가 되어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왕후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앞에 나아가 울며 간청하였고, 왕은 하만이 꾸민 재난을 막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미 반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으니, 그 계략을 막아낼 새로운 조서를 반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다백성은 공격하는 적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공격하는 그들의 식구까지 진멸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방어하여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그 소식은 슬픔이 기쁨으로 뒤바뀔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진멸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날에 함께 모여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얼마나 빨리 그 넓고 넓은 페르시아 각 지방 구석구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느냐 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을 지켜서 보존할 수 있게 한 그 새로운 조서는 빨리 달리는 준마가 바람같이 달려 신속하게 전달해주었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어두운 그늘아래 낙담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

들은 이제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본토 백성 이방인들조차도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에게까지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의 결과로 받게 될 영원한 형벌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 그 복음도 가장 빠르고 급히 이 세상 땅끝에 한 영혼 에게까지 전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마침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음을 가장 급히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3 말씀 속으로

- 1. 왕의 어인이 찍혀 이미 반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죽임을 당할수 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한가지 방법은 무엇이었나?
- 2.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4 삶속으로

- 1. 나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 2.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셨고 유다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높게 하시듯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삶을 마지막에 존귀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5 암송 구절 - 에스더 8:16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6 자녀와 나눔

위급한 상황에 출동하여 도움이 필요한 그 곳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911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빨리 전해야 할 소식은 무엇일까요?

week 1

When you don't give up...

1 Opening Question

Have you ever experienced a difficult situation in life, which turned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later?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Returning from captivity in Babylon, the people of Judah first built a home and a neighborhood to live in, and then proceeded to rebuild the temple. But the Samaritans interfere. So, after their return (thanks to Cyrus' edict in 538 BC),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will cease until the second year of Darius (520 BC). When you calculate the duration of the downtime, it is almost 16 years. Prophets Haggai and Zechariah help.

When the reconstruction of the temple resumes, the governor of Trans-Euphrates (an area west of the Euphrates River) becomes the last stumbling block. How did Darius deal with the last stumbling block, after receiving a letter from Governor Tattenai? Darius asks the library to confirm the "Edict of King Cyrus" mentioned in the letter. Two things are written: permission to build a temple and the rebuilding expense is to be paid out of the royal treasury.

"Moreover, I hereby decree what you are to do for these elders of the Jews in the construction of this house of God: Their expenses are to be fully paid out of the royal treasury, from the revenues of Trans–Euphrates, so that the work will not stop." (6:8) The temple was completed in four years in the sixth year of the reign of King Darius, 516 BC. Hallelujah! If it is not a blessing in disguise, what is it? The interference of Governor Tittenai was the official order of the government to stop the construction work. What would have happened if they gave up because it was an official request?

Even if we live in faith with good intentions and good hearts, we encounter obstacles and face difficult things. There are times that we want to give up thinking that "I am not good enough" or "I can't do it." But today's Scripture tells us what happens when we do not easily give up. You will experience God providing you with a blessing in disguise. If we do not give up when we confront difficulties in life and if we pray and faithfully and sincerely do our work, we can expect that God will do things we have not even imagined.

3 Into the Word

- 1. What is the content of the edict issued by King Cyrus? (6:3-5)
- 2. What is the content of Darius' order? (6: 6–12)

4 Into our Life

- 1. I see people who do not give up but pray and ask for God's will when things are not going well. What kind of person are you? Do you give up easily? Or are you the type of person that believes God might be training you through this work?
- 2. When things don't work out, what is one practice that you can establish to help you not to give up?

5 Memory Verse - Rome 8:28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I am sorry if things don't work out as you hope. Your mom and dad may experience the same situations. What do you do at such a time? Do you easily give up? Or…?

$_{\text{week}}2$

Becoming clear on where to stand!

- 1 Opening Question
- 1. What is number 1 on your bucket list?
- 2. What would be the first thing you need to do to achieve bucket list #1?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ith God's help Nehemiah successfully overcomes the difficult crisis caused by the internal conflicts of the Israelites and finishes the reconstruction of the walls of Jerusalem. To make matters worse, as soon as one problem is solved, a new problem arises. The conspiracy of the adversaries to halt God's good works becomes more cunning and persistent.

Now the adversaries hear the news that Nehemiah and the Israelites have completed all the reconstruction of the walls, except for the work of closing the gates. (6:1) What was their reaction? They plan to destroy the rebuilding of the walls by killing Nehemiah, the leader of the Israelites. (6:2)

Sanballat and his enemies offer to meet each other in the village of Ono Plains. (6:2) But Nehemiah, who sees the enemy's conspiracy, adamantly rejects the offer. Then the enemies spread false rumors that Nehemiah rebuilt the wall as a sign of rebellion. (6:4–7) They threaten that the king will hear the rumors and again demand a meeting to resolve the issue. Nehemiah again rejects this offer (6:8–9), but the plot to eliminate Nehemiah is not over. This time they bribe Shemaiah and ask him to give a false prophecy against Nehemiah, which is a sin in the holy temple of God. But this conspiracy also failed. (6:10–12)

It is impressive to see how Nehemiah prays, focusing on God from moment to moment and not responding to the adversaries one by one. Just as the farmer boldly prunes the lush branches to produce abundant fruit, the image of Nehemiah, who prioritizes God's will and seeks wisdom, rather than paying attention to the enemy's

obstruction, touches my heart. He faced difficult situations due to unimaginable obstruction by enemies. In your case, would this give you opportunities to focus more on where you are supposed to stand and to see more clearly what you have to bear? "What should I do and where should I go?" Nehemiah experiences God's help and guidance more specifically than anyone else. His honest and sincere faith in front of God is very valuable and honorable.

3 Into the Word

- 1. Nehemiah must have experienced much psychological burden due to the attacks of the enemies. How does he deal with it? (6:3, 8, 9, 11, 14)
- 2. Where did Nehemiah find the power to accomplish God's will without being shaken by any obstacles?

4 Into our Life

- 1. If you have to prune one branch in order to mature in your faith, what will God point out in your life?
- 2. When faced with big obstacles in life, what does God want from you for unwavering faith?

5 Memory Verse - John 15:2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he takes away, and every branch that does bear fruit he prunes, that it may bear more fruit."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are some of the recent difficult situations that the family has recently experienced and overcome with God-given wisdom?



Be victorious through intercession

1 Opening Question

Is there anyone who is still interceding and praying for you? On the other hand, are you standing in the gap in intercession for someon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Nehemiah 11 contains a list of people who settled in the land of Judah including Jerusalem and the names of the regions. During the reconstruction of Israel in the era of captivity, some people were designated as residents of Jerusalem, but most of them were scattered and settled in their own cities.

Jerusalem was called the Holy City because the temple was located there and it was the place where God chose to place his name. Jerusalem was first the suitable place for rulers to reside, and their presence encouraged others to dwell there. They threw dice to choose a tenth of the population to live in Jerusalem.

Another way to be designated as a Jerusalem resident was to volunteer to live in Jerusalem on your own. All the people blessed those volunteers. (11:2) Jerusalem was truly the center of Israel. In other words, it was the religious, economic, military, and political center. However, people chose to avoid settling and living there. Because Jerusalem was easy to be the target of attacks, threats, and insults of Gentiles, the residents in Jerusalem had to strive for the public good rather than one's own wealth. It required a stricter standard of living worthy of the inhabitants of the Holy City.

Those who volunteered to belong there were blessed by all the people. Here we see the spiritual mystery of how God runs the world, runs the family, and runs the church. Even if there is a great burden, when you stand right in the place that is set apart as the holy place as a prayer intercessor, those who are scattered around all the villages

and cities and live an ordinary life become channels of blessing for the living God. This is a spiritual mystery.

God is running the church, the family, the society, and the state in the same way. He is still looking for and calling co-workers who are holy and who will participate in God's work. Through their intercession, God will allow loved ones and members of faith to spread their wings as gospel workers and witnesses in their mission field and live boldly as channels of blessing.

3 Into the Word

- 1. How were those who would live in Jerusalem selected?
- 2. Why did people avoid living in Jerusalem, which is called the Holy City?

4 Into our Life

- 1. Have you specifically experienced the power of intercession when you prayed for someone?
- 2. Is there one soul who comes to mind that God wants to save through your life and prayer and to draw closer to God?

5 Memory Verse - Nehemiah 11:2

"And the people blessed all the men who willingly offered to live in Jerusalem."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faced with a difficult situation, what will empower you?



Our most urgent matter is spreading the Gospel

1 Opening Question

Among the news that you have heard in your life, what was the most joyful news? How did you feel when you heard the news?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For the Jews, the day came when sorrow changed and became joy, and the sound of mourning became a shout of cheer. Haman died on a tree, but the decree issued by his scheme to wipe out the Jews was stamped with the king's signature and still in effect. In such a critical situation, Queen Esther knew that she still had a mission to accomplish. Esther again came before the king, wept and pleaded, and the king took steps to prevent the disaster that Haman had set up.

Since it is not possible to revoke the decree that has already been declared, the king gave permission to disseminate a new decree that would prevent the scheme. The content is that the people of Judah can fight against the attacking enemy, and they will be given the authority to destroy their families and take their property. They were able to defend themselves and preserve the lives of the Jews.

This event also points to the gospel of the cross that has been passed down to us. It tells us that the good news needs to rapidly spread to the whole world: the good news that we have been saved from eternal punishment as a result of our sins only through the Atonement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We, who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Gospel and now living in faith, have the same great urgent mission to preach the Gospel to everyone in the world.

For the Jews, the news was the gospel that turned sorrow into joy. On the day when they were decreed to be exterminated, they instead gathered together to defend

themselves, thereby preserving their lives. The question now was how quickly the Gospel would spread to every corner of the vast region of Persia. The new decree, which allowed the lives of the Jews to be preserved, was delivered quickly by a fast—running horse running like an arrow. The Jews, who had been seized by discouragement and despair under the dark shadows, now have "glory, happiness, joy, and honor." In addition, even the native Gentiles who watched this from the side converted to Judaism, became Jews, abandoned their idols, and became people who served the true God.

3 Into the Word

- 1. The decree that had already been issued with the king's signature on it could not be canceled. What was one way to save the Jews who faced no option but to be killed in such a situation?
- 2. What was the content of the new decree to save the Jews?

4 Into our Life

- 1. How much burden do I have for souls who desperately need the Gospel?
- 2. Are you sure that God will honor our lives as we walk in faith to the end, just as He exalted Mordecai and the Jews among Gentile nations in the 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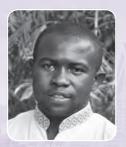
5 Memory Verse - Esther 8:16

"The Jews had light and gladness and joy and honor."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is the most urgent news that needs to be delivered to people living in this world – similar to calling 911 which is the quickest way to reach assistance in an emergency?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3022581 Country: Liberia

Serving At: West Africa Initiative of Liberia

Home Country: Nigeria

Maijamaa, Lily

Lily Maijama'a is a Global Mission Fellow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engaged in a two-year term of service. He was commissioned on July 28, 2019.

The Global Mission Fellows program takes young adults ages 20-30 out of their home environments and places them in new contexts for mission experience and service. The program has a strong emphasis on faith and justice. Global Mission Fellows become active parts of their new local communities. They connect the church in mission across cultur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ey grow in personal and social holiness and become strong young leaders working to build just communities in a peaceful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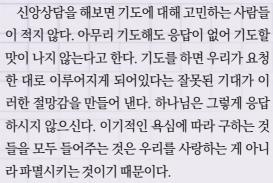
Lily is from Billiri, Gombe, Nigeria. His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s part of the Billiri Charge, Gombe District, Northern Nigeria Annual Conference. He holds a diploma certificate in graphic design and internet from the Millennium Computer Training Centre, a diploma in computer studies from the Rhema Redemption Institute and a certificate in leadership development from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Institute. He has worked for the youth and young adult ministry of the Northern Nigeria Conference and as a project coordinator.

As a young man, Lily did not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A friend guided him to know that in Christ alone, he would find eternal life. "I began to experience the joy of salvation that makes a man happy, even in the midst of atrocities," he said. "I continued to grow in discipleship. I discovered a concern in the body of Christ and around my communities. I sensed God calling me to do something. God began to place a demand for soul-winning in my heart and prompted me to tell others about the love of Christ and my new life experience. Soul-winning has been my ever-joyful experience since then. I am now working with the young people's ministry in the discipleship unit."

Contact Info: imaijamaa@umcmission.org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모든 이기적 요청이 그대로 응답될 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껏 요청해 놓고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하기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자조하기도 한다. 기도하면만사가 해결된다는 말을 믿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한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긴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 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마7:7-8)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라고 반신반의한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마 7:9-10) 당연한 말씀이다. 그럴 아버지는 없다. 하지만 돌을 떡인 줄 알고 혹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달라는 자식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만일 그 청을 받아준다면 그 아버지는 분명 무지몽매한 사람이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울고불고 떼를 쓴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손에 뱀을 쥐여줄 수는 없다. 아이는 '응답이 없는 아버지'라고 원망할지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다. 지금 당장은 원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잘라 읽는다. 앞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만 인용한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목청을 돋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랐다가 실망한다. 이 말씀은 명백한 조건문이다. 조건문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부지 결과부가 아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어야 할부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결과부가 보장된다.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중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

생각해 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충만한 영성에 이르렀다고 하자. 그 사람이 공부하지 않은 자녀의 수능시험 만점을 구할 리가 있는가? 그가 호화스러운 집을 사게 해달라고 구할 리가 있는가?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상 적이고 이기적인 청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약 4:2-3)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한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일 뿐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기도 자체에 이미 응답이 담겨있음을 발견한다. 참된 기도에 이르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알게 된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하고 있으면, 그동안 욕심으로 간구해왔던 모든 요구 사항이 하잘것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에 대하여 청원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마음 가득 청원하고픈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것을 등 뒤로 감추어 버린다. 하나님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과 만나 새로운 영적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다면 그에게 더 이상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는가?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다. 그 만남에서 차오르는 기 쁨과 평안이다. 바닷속과 같은 든든한 평안이 차오르고 전에 맛보지 못했던 희열 이 전 존재를 감싼다. 이러한 경험에 이르면 우리가 요청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 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잘못된기도'라는 말은 있을 수 있으나 '응답 없는 기도'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중언부언하는 헛말로 된 기도라면 모르되,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다. 올바로 기도하는 한 '무엇이든지' 응답이 된다. 바른 기도는 이미 그곳에 응답을 품고 있다.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읽다3

인생은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이진희목사(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산에 오르려면 등산화를 신어야 한다. 로프와 자일을 둘러매야 한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낙타를 사야 한다. 베두인 가 이드를 구해야 한다. 산에 오르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필요하다. 그 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필요 없다.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침반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산은 한눈에 다들어온다.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광야는 절대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광야는 변화무쌍하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 어떤가? 우리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는가? 아니면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는가?

자기 계발서들은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에 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성경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친다. 성경의 인물들은 인생의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정상에서 만납시다"와 같은 자기 계발서들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떻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산은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광야는 절대로 혼자서 지날 수 없다. 혼자 들어갔다 가는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 산은 내 가 내 힘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광야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 남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남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는 광야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산에 오르다 힘들면 내려오면 된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힘들다고 돌아올 수 없다.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포기하면 죽는 곳이 광야다.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곳이 광야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자신만만하다. 정상에 오르면 산을 정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도 광야를 정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절대로 광야에 도전하지 않는다. 광야와 싸우지 않는다. 광야에 순응한다.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고는 그 광야에서 죽고 만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목표 지점이 있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간다. 목표는 저 위에 있다. 그러나 목적지는 저 앞에 있다. 산은 위로 계속 올라가야 한다. 광야는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 가나안은 저 높은 산꼭대기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끝나는 저 앞에 있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는가? 아니면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가?

천신만고 끝에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가 태극기를 꽂았다고 하자. 거기서 사진 찍고 5분 10분 후에는 내려와야 한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지 않 는다.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남보다 더 높이 더 빨리 올라가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 모든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다.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보다 먼저 가야 하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 한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무엇을 얼마만큼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까지 올라갔느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점수 매긴다. 인생을 산에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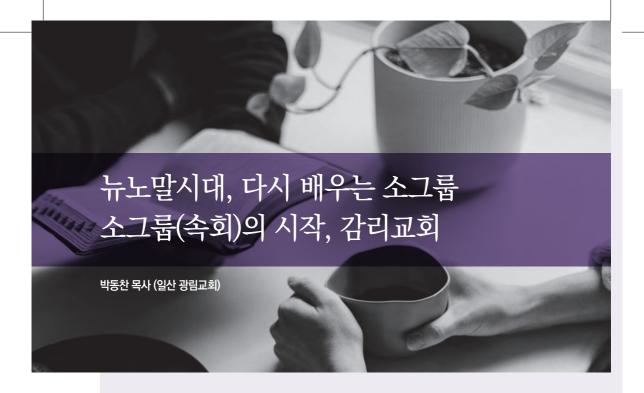
왜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더 많이 누리고 소유하고 차지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그 광야를 산에 오르듯이 살아가니까 힘

든 것이다.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메고 광야를 지난 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광 야에서 버티고 견뎌내면 마침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 게 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공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이 루어 놓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지라도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 라 승리다. 정상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광야를 잘 통과하면 승리하 는 것이다. 가나안은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 니라 광야를 잘 버티고 견뎌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성공한 사 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20대나 30대에는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열심히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그러나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티고 견뎌내는 것,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광야를 지날 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 다. 광야를 지날 때는 축복보다 은혜가 더 필요하다. 축복은 가나 안에 들어가서 필요하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 혜를 구해야 한다.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견딤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광야를 잘 버티고 견뎌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속회는 부류, 등급, 학급, 반 등으로 번역되는 'Class'라는 영어 표현을 한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감리교회의 가장 특색 있는 소그룹 모임이다. 속회는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웨슬리(John Wesley 1703~1791) 목사님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성화의 여정을 돕는 모임

감리교 속회의 태동은 '뉴룸(New Room)'과 연관되어 있다. 뉴륨은 신도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메도디스트(Methodist)의 집회 장소, 설교당, 만남의 집, 학교, 약국, 병원, 설교 훈련소, 도서관, 웨스리의 거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뉴룸과 속회의 시작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웨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영접 이후에 성화의 여정을 완주하지 못하고 파선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웨슬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파산하지 않고 성화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을까?' '성도의 성화를 도울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739년, 웨슬리는 브리스톨(Bristol)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성화의 여정을 모범적으로 해나가는 니콜라스 신도회와 볼드윈 신도회를 보게 되었다. 웨슬리는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시내 중심부의 홀스페어(Horsefair)에 약 100여 평의 땅을 사서, 같은 해 5월 12일 기공식을, 6월 3일 준공식을 하여 뉴룸을 완공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건축에 관련된 빚이 생긴 것이다. 웨슬리는 뉴룸 건축 당시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인들을 임명하여 공사를 맡겼다. 그러다 보니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150파운드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인부들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를 비롯한 후원자들은 즉각 관리인을 해임하고 웨슬리가 직접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건축을 위한 기부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헌금하는 모임에서 목양으로

결국 웨슬리는 1743년 2월 15일 뉴룸의 부채 청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 이 회의에서 은퇴한 선장 포이(Captain Foy)는 신도회 회원들 각자가 뉴룸의 모든 부채를 다 갚기까지 1주일에 1페니씩 내기를 제안했다. 그는 매주 자신이 맡은 11명의 회원을 방문하여 그들의 몫을 거두고 만약 내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대신 내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에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게 되었고 논의 끝에 신도회를 12명씩 나누어 한 그룹으로 묶은 후, 각 그룹에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매주 1회 회원을 방문하여 1페니씩 현금을 모아 회계에게 가지고 온다는 실천사항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것이 감리교 속회의 출발이다.

초기 속회는 뉴룸의 재정 확보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 그룹 대표들은 매주 회원을 방문해서 1페니의 헌금을 거두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회원들의 생활 형편과 영적인 상화들을 웨슬리에게 보고하였다.

덕분에 웨슬리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형편들을 알게 되었고 목회적인 결단을 통해 재정 확보의 수단이었던 속회를 성도들의 성화의 도구로 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부터 12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속회(Class Meeting)'라고 이름을 붙였고, 11명의 회원들을 돌보는 지도자를 '속장(Class Leader)'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재정 확보의 수단에서 성도의 성화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을 달리한 속회제도는 모든 신도회로 급속하게 퍼져 나갔고, 1742년 말에는 속회가 모든 지역에서 제도화되었고 메도디스트 신도회의 신앙교육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속회는 감리교 신앙운동의 중심으로서 성도의 성화와 교회 갱신, 사회 변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웨슬리 사후 속회는 역동성과 상호 돌봄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단순한 성경공부 모임 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워하길 원합니다

매월 🗆 \$ 10 🗆 \$ 20 🗆 \$ 30 🗆 \$ 50 🗆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66 만나실수 있습니다. 99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사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이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u>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u>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새열매교회(남기정, 650-773-8589)**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고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유혁재,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김선용, 772-353-0931)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감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담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전교회(우민혁, 847-949-9705) 울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전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덴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u>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u>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튿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멜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상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삼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자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대구)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정수, 409-554-0550) 성루가연합감리교회(한장탁, 254-526-3993) 쌘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월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이진희,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주요한,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상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상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상톤한인교회(김한성,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허팅톤제일하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론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민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관)
 광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 편집문의
 ☆ 면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류재덕 목사, 김재천 목사, 조기현 전도사 (밸리연합감리교회, CA)

❖ 주일 칼럼

정창호 장로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최 헌 목사 (올네이션스 연합감리교회, KY) 이성현 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